

## 인터넷 서비스 확대 실시

### 증명서 발급 · 홈페이지 내 강의 커뮤니티 개설 등

다음달부터 본교의 인터넷 서비스가 확대될 전망이다. 정보관리실(실장=이종욱·정보관리학)은 최근 단계적으로 내년 2월까지 인터넷 서비스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내달 말부터 실시할 예정인 인터넷 증명서 발급은 현재 시스템이 구축된 상태이며, 실시될 경우 재학생뿐만 아니라 졸업·휴학생에게도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보관리실은 인터넷 원서접수, 등록금 납부를 비롯한 계절학기 수강료 등의 인터넷 결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터넷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결제 시

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정보관리실은 증명서 발급 등과 같은 소액 결제는 핸드폰 요금과 함께 부과하고 등록금 납부 등은 신용카드·계좌이체로 결제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학교측은 과금전문 업체와의 협약을 준비중이다.

또한 내년 1학기부터 문자 메시지를 통해 성적통보, 장학금 신청 등의 학사일정을 알리는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교직원과 본교를 지원하는 수험생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해 활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인터넷 서비스 확대 방안에는 강의 영역을 온라인 상으로

확대시키기 위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정보관리실은 다음 학기부터 본교 홈페이지에 커뮤니티를 개설하는 수업지원시스템(e-Class)을 도입할 예정이다.

수업지원시스템은 커뮤니티 내에 강좌별 풀더가 개설되고 수강을 신청한 학생들이 자동으로 회원 가입되는 것이다. 이는 교수와 학생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통로로 활용돼 학습 효과를 높이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대학 내 인터넷 서비스 강화는 '모바일 캠퍼스'를 추진하고 있는 몇몇 대학에서도 살

펴볼 수 있다. 수업여대는 핸드폰을 통해 학교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mHTML(마이크로소프트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언어) 프로그램을 구축해 개인정보, 공지사항 등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한양대는 무선랜을 통해 외부공간에서 인터넷 강좌 접속 등을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추진 중이다.

대학생들의 인터넷·휴대전화 사용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이를 이용한 다양한 학사행정 서비스는 꾸준히 확대될 전망이다.

대학부  
dmz@dongguk.edu



**불교병원 준공식** ... 본교 의과·한 의과 대학 부속 불교병원 준공식이 총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7일 일산병원 건립 현장에서 진행됐다. 이날 달라이 리마의 스승인 링 린포체가 송석구 총장에게 준공 기념 선물을 증정했다. 또한 행사장에는 경주캠퍼스 의과대학 학생들이 불교병원 12월개원과 실습환경조성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교수·직원·학생은 불교병원개원과 관련한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고, 내일(1일) 이사회에서는 지난번 연기된 불교병원 정관개정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yearn@dongguk.edu

## '알기쉬운 불교 따라잡기'

불교 학생회·석림회 등이 불교 대중화를 위해 '알기 쉬운 불교 따라잡기' 행사를 개최한다.

△목적 배우기  
올해 처음 실시하는 이 행사는 다음달 10일과 17일 오후 6시 30분부터 정각원에서 열린다. 접수는 불교 학생회실(학생회관 2층)과 불교학생회 홈페이지(http://www.dongguk.net)를 통해 가능하다.

△추계 명찰순례  
다음달 11일부터 1박 2일 동안 충북 단양군 전장선원에서 진행된다. 신청은 선착순 45명이며 접수는 학생회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오늘(3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학생복지실에서 받는다.

△명사초청특강  
현각스님이 10월말 또는 11월 초 본관 중강당에서 강연할 예정이다. 현각스님은 '만행-하버드에서 화계 사까지'의 저자로서 현재 경북 주 현정사 주지 스님이다.

△산사체험  
오는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 충북 괴산 다보수련원에서 열린다. 신청은 선착순 45명이며 접수는 겨울방학 전까지 불교학생회실과 불교학생회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집중** ... 지난주 만해광장에서 백상예술제전 농구예선 경기가 진행됐다. 백상예술제전은 다음달 8일부터 3일간 △8일=통일대행진 △9일=음악이 있는 아외카페, 패러디포스터 공모전 △10일=가을운동회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사진부  
snail11@dongguk.edu

## '여중생사건' 전국대학생 총궐기

여중생 미군 장갑차 압살 사건 해결을 위한 전국대학생 총궐기가 다음 달 2일 오후 4시 종묘공원에서 진행된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전국학생연대회의 등이 주최하는 이번 총궐기는 △여중생살인 미군 처벌, 부시 미 대통령 사과 △미군 철수 △미국의 전쟁 반대 등을 기치로 진행된다.  
또한 본교 총학생회(회장=주진

완·국교4)는 총궐기 사전행사로 이날 오후 1시 팔정도에서 '민족통국 걸거운 장례식'을 개최한다. 주한미군의 가장 장례식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고인 약력보고 △죽문낭독 △분향, 헌화 등을 진행하며 행사 후 종묘까지 행진한다.

총학생회는 여중생 압사사건과 관련 지난 7월부터 서명운동을 진행해 현재 약 5천명의 서명을 받았다.

## 총장선거 구체적 일정 논의

### 교수회-선관위 구성, 노조-총회에서 입장 확정

교수·직원·학생이 총장선거를 함께 준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가운데, 선거일정 등에 대한 각 주체의 입장을 명확히 하기 위한 자체 논의에 돌입했다.

교수회(회장=박종훈·윤리문화학)는 지난주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끝내고 다음달 4일 1차 선관위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다. 1차 회의에서는 선관위원장 선출과 향후 선거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선관위 구성은 지난 98년보다 빠른 편으로 총장선거가 예년에 비해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송일호(경제학) 총무는 "학기 중인 11월에 선거를 치러 학내 주체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세부적인 일정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직원노조(지부장=강형석)는 지난

주 부서·직종별 분담토론을 시작해 총장선거에 대한 직원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노조는 다음 주 제10대 직원노조 출범식과 임시총회를 열어 총장선거에 대한 입장을 확정할 계획이다. 특히 교수·학생과의 총장선거 준비 연대활동에 대한 노조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한 직원노조 단독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가 이뤄지면 빠른 시일 내에 선관위원회를 모집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현재 학내 주체들은 총장선거의 구체적 일정 등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각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또한 내부적으로 논의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총장선거를 함께 준비해 나간다는

기본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투표일, 후보자 유세 등과 같은 구체적 일정은 오는 10월 중순 이후 확정 될 것으로 보인다.

조슬기 기자  
chof55@dongguk.edu

### 수시합격생 사이버 강좌 대학기초영어 개설

올해 처음 실시한 1학기 수시모집 합격자를 대상으로 다음달 7일부터 사이버 강의를 실시한다.

합격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사이버 강좌는 조의연(영어영문학) 교수의 '대학기초영어'이며 졸업학점 1학점이 인정된다.

한편, 2003학년도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 원서접수 마감 결과 3.6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모집정원의 2% 정원을 선발하는 이번 특별전형은 15개 단과대가 총 58명을 모집했고 총 213명이 지원했다.

합격자는 다음달 31일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본사사령**

◇ 임 정기자  
▲ 최성민(사과대1)  
- 이상 9월 30일자

### 보리소

### 신의주 유감

북한이 변화하고 있다. 반갑고 기쁜 마음으로 미래를 생각해 본다.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차를 몰고 금강산에 가 온전케 온천에 몸을 담구고 자연의 빼어난 자태를 즐기고 한 2박3일 시간이 있으면 백두산을 올라 호연지기를 기른다. 여름이면 개마고원으로 캠핑 가고 겨울이면 제주도에 골포를 치러 간다.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야 하는 지금의 현실속에서 가담치 않은 생각이지만 가능성을 접할수는 있기에 마음만은 풍요롭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마음을 들뜨게 하는

신의주를 생각해 보자. 나진, 선봉지역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행정권은 중국인에게, 사법권은 유럽인에게 그리고 치안권은 미국인에게 준다고 한다. 풍양의 진주이고 중국경제의 보물창고라는 흥풍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신의주가 중국의 흥풍이 된다는 생각보다 중국 또는 또 다른 나라의 신의주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지금 북한은 신의주를 통해 전체를 살린다고 한다. 웬지 자식 팔아 가족들의 생계를 연명하려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50년 후 다

시 북한이 된다고는 하지만 그전에 통일이 되던지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이 다른 쪽에서 해결된다면 신의주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간 알래스카를 놓고 땅을 치는 러시아인의 모습이 재연될지도 모른다. 물론 알래스카와 다르고 50년 후에는 다시 돌아온다. 하지만 그 누가 50년 후의 세계를 예측할 수 있겠는가? 북한의 변화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런 식의 변화에 우리가 강 건너 불구경만 해야 하는 것인지... 지금 우리는 북한의 변화 그리고 개방이라는 욕구에

많은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단군 할아버지가 한반도에 나라를 세우시고 그 자손으로 백의민족이라는 구성할 때 이런 전제가 있었을 것 같다. 호랑이 형상의 한반도는 한 민족의 것이고 대한사람이 대한에서 같이 보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화시대에 웬 국수주의냐고 욕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누군가는 우리 민족의 미래와 그 터전에 대해 기우일지라도 고민해야 할 것 같다.

남 선  
불교방송 보도국 사회문화부장

### 동대신문 기획광고



## 느껴보자 통일열기 외쳐보자 통~일조국

사상 처음 남북이 함께하는 2002 부산 아시안게임의 막이 올랐습니다.

앞으로 16일 간 계속될 56억 아시아인의 축제 부산 AG가 남북이 하나되는 '통일축제'가 되길 기원합니다.

발전기금 060-700-0119

동대신문사

### 지면안내

**6~7면 동아리 위기와 대안**

IMF, 학부제 실시 등 학내외의 변화로 인해 동아리가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위기의 원인과 대안에 대해 살펴본다.

**4면 도라산역 르포**

경의선·동해선 착공식 다음날 경의선 최북단 도라산 역을 찾았다.

**12면 상상력의 힘**

세상을 변화시키는 상상력에 대해 알아본다.

# 학생대표자회의 잇따른 무산

## 단위학생회 의견수렴 안돼 하반기 사업 우려



김진성 기자

하반기 총대 대의원총회가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지난주 열린 학생대표자회의와 대의원총회가 정족수 미달로 연이어 무산됨에 따라 하반기 학생회 사업에 과학생회 등 단위학생회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할 것으로 보여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총학생회(회장=주진완·국교4)는 지난 24일 중앙도서관 앞에서 학생대표자회의를 열었지만 36명만이 출석해 정족수(48명 이상) 미달

로 성사되지 못했다. 이로써 이번 회의의 인준 안건이었던 장애인권위원회 총학생회 산하기구로 결성하느냐 여부에 대한 결정은 회칙상 총학생회운영위원회로 넘어갔다. 또한 백상애출세전, 총장선거 등 하반기 학생회 활동에 대한 논의도 광범위하게 이뤄지지 못했다. 총대의원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정성중·수교4) 역시 상항은 마

찬가지다. 하반기 대의원총회가 정족수(73명 이상) 미달로 무산돼 논의 안건을 총대의원회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대의원총회에는 △학생회비 환불 요구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 △부기안 예산정지 시행 조정 등 최근 단위 학생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이 주요 안건으로 올라왔다.

이처럼 대표자회의가 무산된 데에는 각 학생 대표들의 책임감 부족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학생 대표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정족수 미달로 안건에 대한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양희창(반도체4) 부총학생회장은 "학생 대표가 한 명도 참석하지 않은 단위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하반기의 경우 상반기보다 학생대표자회의 참석율이 저조한 경향이 있다. 이와 관련해 유영빈(경영4) 경영대 학생회장은 "일부 단위 학생회장의 경우 학생회 활동에 대한 의욕이 갈수록 떨어져 하반기 사업에 소홀한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주진완 총학생회장은 "하반기에는 총장 선거, 불교 병원 등 학내 구성원들의 관심이 필요한 사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대표자회의가 무산돼 학생회 고립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주진완 총학생회장은 "하반기에는 총장 선거, 불교 병원 등 학내 구성원들의 관심이 필요한 사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대표자회의가 무산돼 학생회 고립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주진완 총학생회장은 "하반기에는 총장 선거, 불교 병원 등 학내 구성원들의 관심이 필요한 사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대표자회의가 무산돼 학생회 고립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주진완 총학생회장은 "하반기에는 총장 선거, 불교 병원 등 학내 구성원들의 관심이 필요한 사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대표자회의가 무산돼 학생회 고립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yeam@dongguk.edu

### '1일 1천 줄이기' 행사 수혜학생 위한 모금운동

생활협동조합(이사장=허천택·영어영문학, 이하 생활협)은 오는 30일부터 3일간 수혜학생을 위한 모금운동으로 '1일 1천 줄이기' 행사를 실시한다.

따라서 행사기간동안 △동국관 학생식당 △상록원 교직원 식당 △상록원 학생식당은 기본반찬을 두 가지만 제공할 예정이다.

생활협은 행사기간동안 약 7백만 원이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수혜장학생들에게 학생카드에 충전하는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다.

### 졸준위, 하반기 총운위 개최 박종희 위원장 사퇴 보고

14대 졸업준비위원회 하반기 총운영위원회가 지난 26일 명진관 A104호 강의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16일 사퇴한 박종희(정통4) 위원장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고, 이에 따라 14대 졸업준위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됐다. 앞서 열린 상임위원회는 정보산업대 상임위원 변성욱(정통4) 군을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또한 졸업준위는 이날 각각 △취업국 △기획국 △사무국의 상반기 사업평가와 하반기 사업계획을 보고하고, 졸업 기념품 선정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 불화초본 전시회 열려 병진스님 소장 41점 공개

'조선 불화초본 전시회'가 박물관(관장=장충식·미술사학) 제2 전시실에서 진행중이다.

다음달 12일까지 선보이는 불화초본은 불교그림의 밑바탕으로서 이번 전시회에는 마곡사 병진스님이 소장한 41점을 공개한 것이다.

또한 박물관에서는 전시기간 동안 병진스님의 도록과 불화초본 포스터를 각각 1만원, 2천원에 판매한다.

이번 전시회와 관련해 박물관의 한 관계자는 "불화초본 전시회가 많지 않은 만큼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적성흥미검사 시행 직업 등 8개항목 세분화

학생상담센터(소장=고진호·교육학)가 내일(1일)부터 집단 스트레스 적성흥미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학기 도입한 '스트레스 적성흥미검사'는 △직업 △여가활동 △교과목 등 8개 항목을 300여 문항으로 세분화해 개인의 적성·흥미 등에 대해 알아보는 검사이다.

집단검사는 다음달 10일과 11일 5일, 14일에도 진행되며 개인검사는 수시로 받을 수 있다.



여중생 일사단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자전거 대행진'이 지난 26일 진행됐다. 이날 57명의 행진단은 이태원을 거쳐 용산 미군기지를 방문해 '미국반대'를 외쳤다.

김진성 기자 yeam@dongguk.edu

### 연구처, 논문연구비 지원 국제저명 등급 8편 등 총 14편

연구처(처장=최순열·국어교육) 연구개발팀이 국내 및 국외 전문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14편에 대한 연구비를 지원했다.

지원된 논문 중 국제저명(A&HCI, SSCI, SCI) 등급은 △임현식(반도체 과학)=비대칭 X-밴드 양자 우물에서의 터널링 연구, 고압력에 의해 야기된 X-밴드 전자의 전기적 특성 연구 △김삼동(전자공학)=Stress-induced voiding in sputtered TiSi x Complementary metal oxide silicon gate 등 총 8편이다.

### '차 없는 날' 시행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학내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차 없는 날'이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된다.

차 없는 날은 지난 학기 총학생회와 합의한 사항이며, 이번 학기부터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시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달은 불교병원 준공식 관계로 시행되지 못해 다음달 4일과 25일 두 차례 진행될 계획이다. 차 없는 날은 앞서 지난 98년 시행된 바 있다.

### 탁구동호회 해체

## 건학이념·등록목적 위배

### 종교활동 드러나 학생준칙 의거 등록취소

체육분과 동아리 탁구동호회가 건학이념과 동아리 등록목적에 어긋난 활동을 한 이유로 규정에 의거 등록취소 됐다.

탁구동호회는 지난 14일 학생회관 2층 연화원에서 '대학생회복사업의회' 세미나를 진행하던 중 예배 등 종교활동을 해 다 른 동아리 학생들의 신고로 강제 해산됐다. 당시 수위실과 동아리 연합회에 신고한 모 동아리 회원은 "연화원에서 기도소리와 찬송가가 들려 확인 후 신고했다"고 말했다.

이에 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백종현·경영3)는 지난 주 학생처에 탁구동호회의 종교활동 사실을 알렸으며 학생처(처장=김용기·수학교육)는 지난 18일 학생준칙에 의거, 학생처장의 직권으로 탁구동호회 등록취소를 결정했다.

이번에 밝혀진 탁구동호회의 종교활동은 이전부터 제기됐던 문제이다. 동아리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탁구를 배우기 위해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들이 종교활동을 강요하자 동아리를 탈퇴하

는 등 종교활동 문제는 예전부터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탁구동호회 측은 이는 초기 회원들이 종교활동을 했던 동아리 설립(99년) 당시의 상황이며 최근에는 탁구대회 개최, 봉사활동 등이 주된 활동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연화원 모임'을 주최한 탁구동호회 전 회장 박원복(행정4) 군은 "탁구동호회 회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타대학 학생들이 종교 활동을 한 것"이라며 "이번 동아리 등록 취소를 받아드린 것은 2년 전 종교활동을 이유로 적발, 경고 받은 후 다음 적발 시 등록취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 때문"이라고 말했다.

결국 탁구동호회는 등록취소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 25일 학생회관 내 탁구동호회 동아리방을 비웠다. 이 자리에는 입주 1순위였던 락 동아리 피어리스단이 입주하게 됐다.

대학부 dmz@dongguk.edu

## 회전무대

### 왕복 운동

○...지난주 수강과목 취소기간동안 몇몇 교수들의 연구실에는 유난히 학생들의 출입이 잦았다는데.

이유인즉 수강과목을 취소하기 위해 담당교수의 도장을 받으려는 학생들이 교수가 연구실에 없어 헛걸음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연구실 출입문에 재실 시간을 표시해 학생들이 방문 가능 시간을 정할 수 있게 해야 하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왓, "수강과목 취소 최대의 필요 조건=인내심(!)"

### 밤손님

○...요즘 학생회관은 밤마다 전장을 치른다는데.

알아보니 학생복지실의 허가가 없이 학생회관 야간 잔류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생들이 문을 열어달라며 난동(?)을 피우기 때문이라고.

허가 없이 야간 잔류하려는 학생들이 출입을 요구하고 있어 야간 근무를 서는 수위아저씨들이 업무에 차질을 빚는다고 하니.

이에 야간 근무를 하던 한 수위아저씨 왓, "언제나 열려 있는 학생회관, 초대받지 않은 밤손님은 사절합니다(!)"

### 비밀

○...본관 1층에서 화장실을 이용하려는 몇몇 사람들은 짜증을 내곤 한다는데.

이유인즉 화장실이 없는 사실을 모르고 헤메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화장실이 없다면 위치를 나타내는 표지판을 설치해 이런 불편을 줄여야 하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왓, "표지판 당선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 과잉보호

○...요즘 팔정도에 경비아저씨와 학생들이 실랑이를 하는 모습이 눈에 띈다는데.

알아보니 일부 경비 아저씨들이 정숙, 흡연 등의 이유로 학생들을 팔정도 밖으로 내보내려 하기 때문이라고.

이는 몇몇 학생들의 잘못을 확대 시켜 많은 학생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이니.

이에 본 회전 무대자 왓, "팔정도 안에서는 음료수받침 및 집담을 금합니다."

## 사회봉사활동 참가안내

"행복하고 따뜻한 세상 동국인이 함께 만들어 갑니다"

1. 동국참사람봉사단에서는 '98년 4월부터 2002년 9월 현재까지 우리 지역 내 무의탁노인을 비롯하여 소년소녀가장재단, 모자가정 등 어려운 이웃과 지속적으로 결연을 맺고 후원금을 모금하여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2. 지속되는 경제위기 상황속에서 경제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또는 신체적으로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최저생활을 꾸려 가는 것도 어려운 이웃들은 더욱 더 가중된 생활난에 의해 모진 외로움과 소외감, 슬픔과 고통으로 힘들게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3. 우리 교유의 명철한 추적을 맞이하여 보다 더 많은 어려운 이웃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동국인의 작은 사랑과 정성을 모아져 웃기와 힘이 되어 드리고자 교직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봉사활동 참가 방법

가. 신청서 접수기간 : 연중 계속  
나. 후원금 및 물품지원 봉사활동

(1) 후원금봉사 : 봉사대상자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계좌에 입금해서 생활하는데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봉사대상자는 중구청 사회복지과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 순으로 선정함.)

(2) 물품 봉사 : 생활필수품, 의류, 의약품 등  
\* 물품봉사는 동국참사람봉사단으로 연락주시면 바로 수령해 가겠습니다.

다. 참여 방법 : 별첨 신청서 작성제출(매월 급여에서 공제)  
\* 이웃돕기 모금사업에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은 후원금액(월3,000원이상), 후원 기간 등을 적어 핸드포프스의 전자우편(수신 : 최정숙)이나 신청서를 동국참사람봉사단(본관3층)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98년 4월부터 2002년 9월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중구관내 이웃돕기 활동에 동참 하셔서 물심양면으로 후원해주신 2004분의 여러 교직원 선생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내주시 정성어린 후원금은 봉사대상자들에게 매우 소중한 마음으로 전달되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 문의 전화 2260-3049 동국참사람봉사단 - 최 정 숙 -

## 동국참사람봉사단

## 2003 여군사관 모집

1. 모집인원 : 000명
2. 지원자격
  - 4년제 대학졸업자 및 2003. 2월 졸업 예정자
  - 2003. 10. 1 기준 만 20세 ~ 27세 이하의 여자(1975. 10. 1 ~ 1983. 9. 30)
  - 군 인사법 제10조 장교임용 자격상 결격사유 미 해당자
3. 지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 2002. 10. 19까지
4. 구비서류
  - 가. 지원서(사진첨부) 1부
  - 나. 대학졸업(예정)증명서 1부
  - 다. 대입수능(학력)고사 성적증명서 1부
  - 라. 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열람용) 1부(졸업예정자는 4학년 1학기까지)
  - 마. 천연색 사진(4×5cm) 3매
  - 바. 효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각 3부(부모사망시 제적등본)
5. 선발 방법 / 일정
 

구분	방 법	일 정
1 차	서류전형 (수능/대학성적)	2002. 9. 2 - 11. 9
2 차	체력검정, 면접평가 인성검사, 신체검사	2002. 11. 11 - 12. 14
3 차	신원조회	2002. 12. 16 - 2003. 1. 11
6. 최종 합격자 발표 : 2003. 1. 24
7. 특전
  - 대학졸업과 동시에 육군 소위로 임관
  - 국내외 민간 대학원 국비 학위가능(장기 지원자)
  - 미국 및 우방국 군사교육(장기 지원자)
  - 군 복무간 복지 혜택
    - 군인 및 군인가족 의료보험 혜택
    - 결혼시 군 관사 입주, 휴가 / 출장시 휴양시설 이용, 대학원 진학시 교육비 지원
  - 전역시 일반 기업체 취업 알선
8. 접수 및 문의처 : 학군단(전화, 서울 2260 - 8537)

## 제 112 학생 군사교육단

## 2003 학사사관 후보생 모집

1. 모집인원 : 000명
2. 지원자격
  - 4년제 대학졸업자 및 2003. 2월 졸업 예정자
  - 2003. 10. 1 기준 만 20세 ~ 27세 이하의 남자(1975. 10. 1 ~ 1983. 9. 30)
  - 군 인사법 제10조 장교임용 자격상 결격사유 미 해당자
3. 지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 2002. 11. 2까지
4. 구비서류
  - 가. 지원서(사진첨부) 1부
  - 나. 대학졸업(예정)증명서 1부
  - 다. 대입수능(학력)고사 성적증명서 1부
  - 라. 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열람용) 1부(졸업예정자는 4학년 1학기 까지)
  - 마. 천연색 사진(4×5cm) 3매
  - 바. 효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부모사망시 제적등본)
5. 선발 방법 / 일정
 

구분	방 법	일 정
1 차	서류전형, 체력검정 신체검사, 면접평가	2002. 9. 16 - 11. 23
2 차	인성검사, 신원조회	2002. 12. 30 - 2003. 2. 22
6. 최종 합격자 발표 : 2003. 3. 12
7. 특전
  - 대학졸업과 동시에 육군 소위로 임관
  - 국내외 민간 대학원 국비 학위가능(장기 지원자)
  - 미국 및 우방국 군사교육(장기 지원자)
  - 군 복무간 복지 혜택
    - 군인 및 군인가족 의료보험 혜택
    - 결혼시 군 관사 입주, 휴가 / 출장시 휴양시설 이용, 대학원 진학시 교육비 지원
  - 전역시 일반 기업체 취업 알선
8. 접수 및 문의처 : 학군단(전화, 서울 2260 - 8537)

## 제 112 학생 군사교육단

# 이사회구성 고비넘겨 논의 빨라질듯

## 자율가입 조합원 확보 새로운 문제로 ... 추진과정 적극적 공개 필요

### ■ 생협 독립법인 추진 어디까지 왔나

지난 2000년부터 추진된 생활협동조합(이사장=허천택·영어영문학, 이하 생협)의 독립법인 전환이 눈앞에 다가왔다.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됐던 부분은 최고결정기구인 이사회·대의원의 교수, 학생, 직원 구성비율을 정하는 문제였다. 하지만 최근 이사회에 이에 대한 잠정적인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독립법인 추진이 급물살을 타게됐다.

지난 2000년 생협의 독립법인 추진이 결정된 후 이사회·대의원회 구성을 둘러싼 논란은 2년 6개월 동안 계속됐다. 생협의 한 관계자는 "이사들이 각자 자신이 대변하는 주체의 영향력이 축소될 것을 우려해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아 논의가 팽팽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생협 이사회는 의결권을

교수·교직원과 학생간에 동등하게 배분하고 의결방법을 만장일치체도로 하는 것으로 각 주체들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지난 18일 이사회는 교수이사에 포함된 이사장의 의결권을 박탈해 이사 13인의 각 주체별 구성비율과 대의원 101인의 주체별 의결권 비율을 동일하게 했다. 또한 행정업무까지 총괄하는 상임이사의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했다.

하지만 상임이사의 자격조건 부분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 현재 상임이사의 자격으로 △학교보건 직원 △생협 직원 △외부 전문경영인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이에 대해 각 주체별로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특히 학생측의 입장이 명확하다. 임형준(중문3) 학생복지위원장은 "외부법인인

학교의 직원이 생협의 상임이사로 파견된다면 생협을 진정한 독립법인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생협직원이 상임이사 자격을 갖는 것에 대해 일부 교수이사는 "의결사항을 수행해야 할 직원들이 의결에 직접 참여할 수는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독립법인 초기 상임이사는 상대적으로 반대의견이 적은 외부 경영인에게 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편 생협은 이사회 논의와 함께 독립법인을 위한 준비를 병행해왔다. 지난 4월에는 외부경영인단을 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 생협 내 팀 운영을 개편했으며 독립법인 추진을 목표로 경영진단결과를 논의하는 생협발전연구위원회(위원장=유덕기·생협자원유통경제학)도 구성됐다. 또한 생협의 각 주체별 이사들이 일본 생활협동조합 연수를 다녀온 것도 생협에서

준비한 독립법인 과정의 하나였다.

생협 관계자들은 앞으로 생협이 독립법인으로 전환하는데 해결해야 할 커다란 문제로 자율가입 조합원 구성을 꼽는다. 올해 초 계획했던 대로 내년 3월까지 독립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내년 초 창립총회를 열어야 하는데, 이 때까지 300명의 조합원이 독립된 생협에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생협의 존재조차 모르는 이들이 대다수인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출자금을 내놓을 조합원들이 얼마나 될 지 미지수다.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끌어온 독립법인 관련 논의에 정작 대다수 조합원들은 배제되어 있었다. 생협이 조합원들이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독립된 법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조합원들에게 독립법인 추진과정을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송윤경 기자  
itsj@dongguk.edu

### 의대정원 감축논란

# 수요상승 고려안한 '기득권 챙기기' 우려

## 의료계 10% 감축 주장 ... 국민 의견 고려해 결정해야

최근 의료계, 정부에서 의대 정원 감축 문제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의료계와 보건복지부 관계자들로 구성된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이하 의발특위)는 의사들이 새롭게 배출되는 속도가 빨라 의사들의 과잉공급이 예상된다며 2003년부터 의대정원을 10% 감축할 것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를 단장 실행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보고 2004년부터 3년동안 단계적으로 10%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교육부의 방침이 지난 2000년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맺은 약속을 파기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재정경제부가 의대정원 감축안에 반대의를 표명하면서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6일 "노령화가 가속화될 경우 환자 수가 더욱 늘어날 것이므로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반대입장을 밝혔다. 의대정원 감축을 요구해온 의료계와 정원 감축 요구가 의료업계의 '기득권 챙기기'라고 비판하고 있는 시민단체 간의 논란이 정부 내 세 부처 사이에 혼선을 일으키는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논란이 여기까지 이른 데는 정부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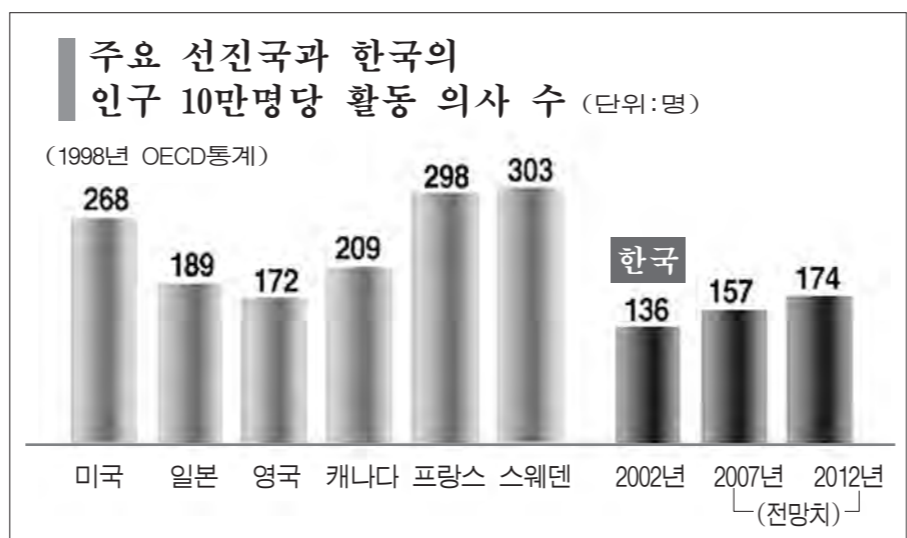
전 의대 정원을 감축하기로 합의해놓고 시행이 다가온 요즘에서야 뒤늦게 내년부터 실시하기 어렵지 않느냐는 식으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적정 의사 수는 몇 명일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꼭 잡고 넘어야 할 질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의사는 6만 2천여 명. 인구 비율로 따지자면 10만명 당 136명 정도다.

하지만 90년대 신설된 의대들이 의사를 대폭 배출하고 있는 추세로 볼 때 2007년에는 인구 10만명 당 157명, 2012년에는 174명을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는 의사 수가 적정 수준을 넘어서면 의사들이 과잉진료나 비보험 진료 등으로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에 의료비 상승이 우려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 상황을 놓고 볼 때 의사배출능력을 줄이자는 의견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 우세한 편이다. "3시간 기다려 3분 진료받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다수 국민들이 의료공급이 불충분하다고 여기는 분위기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향후 10년 내에 의사가 넘쳐나게 된다는 가정에 의문을 제기한다. 전체 의료비가 지난 98년 9조9000억원에서 2000



년에는 13조원을 넘어서는 등 의료시장의 시장 규모가 앞으로 커질 것이 분명한데 현 시점에서 적정 의사 수를 미리 정하는 게 무리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명지대 조종근(경제학) 교수는 "의료시장의 수요가 늘어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인구 10만명당 의사 몇 명'식의 통계로 공급과잉을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민중의료연합의 박주영 씨는 "지금까지 의료정책은 의료소비자인 국민이 아닌 의

료계 중심으로 진행돼 왔다"며 이번 의대 정원 감축 논란도 의료소비자인 국민 입장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 대부분이 의사가 부족하고 병원 문턱이 높다고 여기는 상황에서, 성급한 의대 정원 감축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문제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정형 기자  
caesar2000@dongguk.edu

### 사설

## 제주체 함께 개원 준비하자

본교 의과·한의과대학 부속 불교병원의 준공식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지난 99년 10월 첫 삽을 뜬 것을 시작으로 3년 여간 진행된 병원 건축이 마무리됐다는 점은 뜻 깊지만, 개원에 대한 계획이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점은 못내 아쉽다.

현재 병원 개원에 대해 학교측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다만 일부 이사들이나 학교 관계자들의 주장에 따라 "빠르면 내년 5~6월쯤 가능할 것"이라고 알려져 있을 뿐이다. 하지만 준공식에서 개원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이는 입기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송석구 총장과 재단공금 횡령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오는 12월까지 사퇴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오복원 이사장, 누구도 책임 있는 발언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당장 준공식 이후 불교병원의 개원 준비 일정은 계획된 것이 없다. 그동안 일사천리로 추진돼오던 병원 건립이 준공식까지 마무리된 시점에서 누구 하나 개원준비에 책임 있게 나서지 못하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이제 불교병원의 개원정상화를 위해 특정 인물·집단이 아닌 학교와 관련된 모든 주체들이 나서야 할 때가 왔다.

같은 맥락에서 교수회와 직원노조, 총학생회가 함께 준비하고 있는 토론회는 귀추가 주목된다. 병원 개원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진 상황에서 학내 구성원들이 함께 재정과 운영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물론 토론회가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꾸준한 요구였던 대로 학교측이 병원과 관련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한 달째 수업 거부 투쟁을 벌이고 있는 의대 학생회도 "학교측으로부터 개원이 연기된 구체적인 이유를 듣는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학내 구성원이 병원 개원정상화를 위해 나서는 상황을 이사회가 의면해서는 안 된다. 정관 개정 때 보인 무조건적 반대 입장에서 벗어나 주어진 여유시간동안 개원과 관련한 운영방안, 위험요소 제거 등을 검토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불교병원 건립은 본교 역사상 가장 큰 사업이다. 준공을 마치고 개원까지의 과정이 순탄치 못한 지금 학교와 관련한 제주체들의 지혜를 모으는 것이 절실하다. 불교병원의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개원을 위해 우리 모두 나서야 할 때다.

### 동국만평

성덕환 pybumbuk@hanmail.net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 15일 창간(주간)

발행인	송석구	인터넷 동대신문	http://dgupress.dongguk.ac.kr
편집인	유현우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edu
부주장	장영길	구독문의	(02)2260-3491·2, 동대신문 홈페이지
편집국장	류변성		
편집장	손상민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26 경주캠퍼스 (우)700-714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  
전화 (02)2260-3491·2 팩스 (02)2279-1270 전화 (054)770-2058 팩스 (054)770-2057

## 건강검사 공고

대학 기간동안의 개인의 건강관리 및 입사 지원시 기업들이 실시하는 건강검진 준비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강검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건강검사는 건강관리를 위해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검사들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재학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대상인원 : 재학생전체
- 비 용 : 무료
- 기 간 : 9월 30일(월) ~ 10월 2일(수), 3일간  
10:00 ~ 17:00 까지  
(점심시간 12:00 ~ 13:00)
- 장 소 : 본교 보건소 (본관2층)
- 검사내역 : 1)간염 검사(항원항체검사)  
2)간기능검사  
3)소변검사(당, 단백, 잠혈)  
4)빈혈검사  
5)혈당  
6)혈압  
7)흉부엑스레이

보건소 · 졸업준비위원회

## 제18회 추계명찰순례 안내

수확 · 풍요 · 단풍 · 천고마비 · 독서 · 낙엽 · 사색 · 깨달음.....  
가을은 열매임과 쓸쓸함이 공존하는 계절입니다.  
그 풍요롭고 활량한 바람찬 들녘에 서서 일상의 답답함을 벗어나,  
바쁘게 살아 온 한해를 더욱 보람 있게 정리하고  
여유와 나눔의 마음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함께 멋진 인연을 만들어 볼까요  
말목산의 제비봉과 충주호의 구당, 옥순봉의 절경이 아름다운 곳,  
충청북도 단양군 천장(天藏)천원사의 기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순례일자 : 2002. 10. 11(금) ~ 10. 12(토) <1박2일>
- 순례장소 : 충청북도 단양군 천장산원
- 참가대상 : 전 동국인(45명) - 선착순으로 접수함
- 참가비 : 오전원(₩5,000)
- 접수기간 : 2002. 9. 30(월) ~ 10. 10(목)
- 접수처 : 본관 3층 학생복지실(☎2260-3048)
- 출발일시 및 장소 : 2002. 10. 11(금) 오후3시, 정각원 앞

학 생 처

## 한 달에 한 번 차 없는 날을 만듭시다

보다 쾌적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의 캠퍼스를 만들기 위해 '한 달에 한 번 차없는 날'을 시행합니다. 모든 구성원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바랍니다.

- 행 사 명 : 한 달에 한 번 차 없는 날
- 시행방법 : 학기 중(방학기간은 제외)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 차 없는 날 실시 일자 및 횟수 : 총 3회  
가. 9월 : 9월 27일이나 불교병원 준공식 관계로 그 다음주로 연기하여 실시  
나. 10월 : 10월 4일(9월분), 10월 25일  
다. 11월 : 11월 29일
- 실시내용 : 차 없는 날 당일 학교 공용 차량, 납품 및 공사차량, 장애인 차량, 긴급 차량 등을 제외한 모든 차량의 출입 통제

다시 한 번 모든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학 생 처 · 총 학생 회

동약론

무늬만 검증



“교수님이 뭐라고 설명하시는지 이해가 안돼.”
“차라리 독학하는 게 훨씬 빠르겠다.”
최근 경주캠퍼스에서는 컴퓨터 실습과 관련한 한 강좌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몇몇 학생들은 원활하지 못한 강의 진행에 수업 듣기를 포기해 버린다. 위 강사의 채용심사를 맡았던 한 교수는 “컴퓨터 관련 전공자이며, 학교측에서 요구하는 연구 및 경력이 인정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강사는 비슷한 분야를 전공했을 뿐 수업 관련 분야는 전공하지 않아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처럼 경주캠퍼스에서는 강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지 않아 전문성이 떨어지는 강사가 교양수업을 담당하는 일이 간혹 벌어지고 있다.

그렇 경우 위 사례처럼 강좌 채우기 식의 강사초빙이라는 비난과 함께 수업의 질이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이같은 일은 학교측이 강사를 채용할 때 실무적인 능력보다는 경력을 중시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이번 일처럼 컴퓨터 수업의 경우 강좌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잘 다룰 수 있는 지를 따져야 하는데 이 부분이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컴퓨터학과의 한 교수는 “각 분야의 능통한 강사를 채용하는 것은 본교의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사 채용은 교육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며, 학교측은 강사 채용 시 경력보다 담당 강좌와 관련해 실무적으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이지현 기자

easy01@mail.dongguk.ac.kr

경의선 최북단, ‘도라산역’을 가다



남과 북이 경의선·동해선 등 57년 동안 끊겨있던 남북철도를 잇기로 합의해 지난 18일 남측의 도라산역, 통일전망대와 북측의 개성역, 금강산청년역에서 경의선·동해선 착공식이 동시에 진행됐다.
남북철도가 연결되면 이산가족 상봉소를 설치하는 등 남북교류가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결돼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편집자

추석을 이틀 앞둔 지난 19일, 서울역은 귀향 길을 서두르는 사람들로 붐볐다. ‘고향을 떠나 온 사람치고 타보지 않은 이가 없다’는 서울역 기차가 사람과 화물을 실어나르니 올해로 103년째. 지금은 대부분 ‘남쪽’을 향해 달리고 있지만 50여 년전까지 서울발 기차 중 둘에 하나는 신의주행이었다.
“도라산 행 하나 주시오”
전광판 하나 없이 조촐한 경의선 행 열차 표 판매소. 지난밤 경의선 연결 착공식 뉴스를 지켜봤다는 어느 노인은 홀로 도라산 행 기차표를 샀다. 지갑에서 꼬깃꼬깃한 지폐를 꺼내는 늙은 손 너머로 낡아빠진 흑백 가족사진이 보인다.

이산가족들이 남북철도 연결에 처음 희망을 품었던 때는 20여 년전이다. 1984년 진행된 남북경제회담에서 남북은 경의선을 비롯한 남북철도 연결에 상당한 의견접근을 이룬 것이다. 이후 철도연결문제는 남북회담에서 빠지지 않는 단골메뉴가 됐지만 본격적인 논의는 6.15선언 직후인 2000년 8월 장관급회담 때에야 진행됐다.

언론에서는 지난 18일 경의선·동해선 착공식을 전하며 남북이 ‘첫 삼을 뒀다’고 표현했지만 정확히 ‘삼’을 처음 뜬 것은 그 해 8월이다. 그러나 같은 해 겨울, 북측이 기술문제 등 공사를 중단한 후 부시 정부가 들어서면서 북미관계가 악화되자 철도연결도 다시 멀어지고

말았다. 남북은 다시 2년을 기다려야 했다.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 연결해놓고 화물만 잔뜩 실어다 나를지도 모르고.”

열차가 서울역을 미끄러지는 사이 한정근(69) 씨가 한 숨을 쉬듯 중얼거린다. 창가에는 고층빌딩과 아파트들이 지나간다. 57년 전 한 씨가 경의선열차 지붕을 타고 피난내려올 때에는 볼 수 없던 풍경이다.

출발한 지 약 두 시간 만에 임진강 역에서 열차를 갈아탄 후 도라산 역에 도착했다. 맞은편 플랫폼에 ‘개성·평양방면’이라고 적힌 새 표지판이 눈에 띈다.

도라산역을 찾는 관광객은 하루 3백여명이다. 파주시는 올 해 봄부터 이들을 위해 도라산역 주변 제3방글, 도라 전망대, 통일촌 등을 관광코스 만들어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이날도 열차에서 내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시 버스에 올라 도라산역 주변을 돌아보고 있었다.

관광코스 중에서 실행민들이 가장 오래 머물고 싶어하는 곳은 바로 도라전망대. 망원경을 들여다보면 김정일(72) 씨도 새삼스레 망향의 한을 풀어놓았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모두 평양에 계신데. 추석이고 뭐고 명절 때면 그냥 집에 있었는데 혹시 기차 타고 갈 수 있을까 해서 왔어. 아직 못 가는 것 다 알면서 왔대네.”

개성공단의 꿈

망원경 속 이북은 가깝다. 500원짜리 동전을 넣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개성시가지와 긴 길대에 꽂힌 인공기가 펼쳐지는 모습이 한 눈에 들어온다. 크고 작은 건물들도 눈에 띄지만 뿌연 안개에 가린 개성은 마치 잠들어있는 도시처럼 보였다.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제1의 무역도시 자리를 지켜온 옛 개성의 화려한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수출이 무성한 비무장지대는 오래 전 개성상인들이 집을 지고 오갔던 길, 우리정부는 남북의 길을 다시 이으면 서울을 통과할 불통림이

세배이상 늘어날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 유라시아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무역기지가 되리라는 전망이다.

게다가 이북은 경의선 연결 시점에 맞춰 개성공단을 개발 중이다. 이남의 신발업체를 비롯한 몇몇 경공업체들이 이미 개성에 입주하기로 약속했다. 몇 년 뒤 도라 전망대의 망원경을 들여다보면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이남 사람들과 이북사람들이 함께 손을 흔들지도 모를 일이다.

도라 전망대에서 멀지 않은 개성에서 불과 12km 떨어진 곳에 통일촌이 있다. 이남의 최북단 마을 중 하나로 정부에서 허락한 소수의 주민들이 자급자족하며 살고 있다.

총 내려놓은 남북군인

“막걸리 한 잔 하게나. 지뢰 없애느라 수고 많아.”

통일촌 한쪽에서는 술이 얼큰해진 노인이 주황색 조끼를 입은 군인들에게 술을 권하고 있었다. 비무장지대의 지뢰를 걷어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장병들과 장비들이 최전방인 이곳에 모인 것이다. 대구에서 파견됐다는 어느 상병은 “이렇게 지뢰 제거하다가 결국 내가 군대 제대하기 전에 통일이 되어버리면 얼마나 좋겠느냐”며 뺨을 찜냈다. 어쩌면 철도연결의 ‘실례임’은 총을 내려놓은 군인들이 가장 많이 느낄 지도 모른다.

실행민들은 다시 마지막 기차를 타기 위해 도라산 역에 모였다. 오후 5시가 되자 마지막 기차가 임진강을 건너 도라산 역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신의주행 기차가 사람과 화물을 나르기를 멈춘지 올해로 57년째, 추석을 앞둔 최북단 도라산역에는 경의선 열차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송윤경 기자

itsj@dongguk.edu

가상뉴스

남북철도가 연결되면?

경의선, 동해선 철도 연결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는 효과 외에 경제적 차원에서 상당한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경의선, 동해선 연결 후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사건들을 가상보도 형식으로 꾸며본다.

△ ‘철의 실크로드’ 건설 = 16대 000 대통령이 2006년 유럽에서 열리는 제6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아셈)에 참석하기 위해 오늘 서울역을 출발했습니다. 000 대통령은 철도를 이용해 신의주, 시베리아를 거쳐 목척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번 순방길은 2002년부터 착공한 ‘철의 실크로드’ 건설의 성과를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습니다.

‘철의 실크로드’란 한반도 종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 중국 횡단철도 등이 하나로 연결되는 철도망을 뜻한다. 기차를 타고 서울을 출발해 중국 대륙 또는 시베리아를 횡단한 후 유럽에 도착하는 상상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철의 실크로드’가 완성될 경우 미국, EU, 동북아의 세계 3대 경제축 가운데 EU와 동북아라는 2개의 경제축이 연결돼 경제적 파급 효과가 상상을 뛰어넘을 전망이다. 특히 한반도가 동북아 물류 중심지기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 이북 관광객 급증 = 이북을 방문한 남측 관광객이 처음으로 2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수도권에서 가까운 개성 관광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한편 머지않아 이북의 명산인 묘향산 관광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 남측 관광객들의 증가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해선 착공을 계기로 설악산, 금강산을 잇는 남북 관광벨트 구축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동해선과 동해선 임시도로 연결을 통해 적자누적으로 위기에 빠진 금강산 관광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강산 육로관광 시 관광객은 내년 48만명에서 2005년에는 1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편 경의선이 복원될 경우 개성이 금강산에 이어 ‘이북관광 2호’의 유력한 후보지로 떠오르게 될 전망이다. 개성관광이 성사되면 만월대, 선죽교 등 고려시대 유적지와 송악산, 박연폭포 등 이른바 절경들이 주요 관광코스로 짜여질 것으로 보인다.

△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 = 2001년 당시 40억달러 수준이었던 남북교역 규모가 100억달러가 넘었다는 소식입니다. 또한 40만5천톤이던 남북간 연간 물동량도 3년만에 4배가량 증가하는 등 남북 교역규모가 해마다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남북이 단일 경제공동체로 부상할 수 있는 점은 이번 북원공사의 가장 큰 경제적 수확으로 꼽힌다. 철도연결 이후 남측은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북측은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산업구조가 각각 재편되고 북측의 경공업이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통일연구원 김영운 연구원은 “남측의 기술, 자본과 북측의 노동력이 결합하면 민족경제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우정현 기자

caesar2000@dongguk.edu

발전기금 060-700-0119

작은 빛물이 모여 큰 강을 이룹니다!

우리나라는 거레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구국의 대작불사를 전개해 왔습니다.

신라시대에는 황룡사와 불국사를 건립했고, 고려시대에는 팔만대장경을 만들었습니다. 선각자들의 가르침으로 민족의 어둠을 밝히고 나라를 일으켜온 동국의 찬란한 100년!

지금 우리는 수도권 불교병원 건립의 대원력을 세우 이땅에 불국정토를 구현하려 합니다.

작은 빛물이 모여 큰 강을 이루듯이 인연있는 한사람, 한사람이 마음을 모으면 그 공덕은 수미산과 같습니다.

오늘도 동국은 10년 후, 100년 후를 생각해 우리시대에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작은 정성도 가치 있게 쓰겠습니다

- 자비의 벽돌쌓기 운동 : 이천만 불자가 '자비의 벽돌'을 한 장씩 쌓으면 약 사여래의 대원을 이룹니다. 자비의 벽돌 한 장(1만원)이상씩 금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 만불불안 운동 : 불교병원 건립기금 및 동국발전기금 100만원 이상 기부자에게 깨달음의 법당인 본교 대각전에 원불을 봉안해 드립니다.
● 동국사랑 저금통 갖기 운동 : 학교에서는 저축하는 마음으로 나라경제를 살리고 학교발전에도 기여할 '동국사랑저금통'을 드립니다. (신입생, 재학생, 동문, 학부모)

이렇게 쓰여집니다

- 발전기금 : 동국발전후원금과 동국사랑저금통기금 등 기부자가 용도를 별도로 지정하지 아니한 출연금
● 특정목적기금 : 불교종합병원 건립기금 등 기부자가 특정용도를 지정한 출연금
● 단위기금 : 각 대학(원), 학부(과) 등 각급 단위의 특정부서에서 사용하도록 지정한 출연금
● 장학기금 : 장학금 수여를 주된 목적으로 기탁한 출연금
● 수증물품 : 교육 및 연구활동을 위하여 지원된 각종 기자재, 기타 환급성 물품

연락처

- 서울캠퍼스 대외협력처 발전기금팀
Tel (02) 2260-3794~5 Fax (02) 2260-3796
● 경주캠퍼스 기획처 대외협력팀
Tel (054) 770-2100 Fax (054) 770-2203

탄생 100주년 문학인 기념문학제

# 동갑내기 작가들의 '노래와 꿈' 다시보기

남으로 창을 내겠소, 진달래 꽃, 벼어리 삼룡이, 향수, 사랑 손님과 어머니, 태평천하.

우리나라 20세기 문학을 대표하는 이 시와 소설들은 신기하게도 모두 1902년에 태어난 작가들의 작품이다. 1902년에 태어나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정열적인 문학활동을 펼치며 우리 근대문학의 여명기를 풍성하게 했던 김상용, 김소월, 나도향, 정지용, 주요섭, 채만식 이들 6명의 작가들이 2002년 올해 탄생 100주년을 맞이했다.

지난 26일과 27일 양일간 민족문학작가회의와 대산문화재단이 이들의 탄생 100주년 기념문학제 '식민지의 노래와 꿈'을 개최했다. 이날 문학제에서 유종호(연세대 국문학) 석좌교수, 황현산(고려대 불문학) 교수, 이주형(경북대 국어교육학) 교수, 최유찬(연세대 국문학) 교수, 김대행(서울대 국어교육학) 교수 등 여러 전문가들에 의해 이들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졌다.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작품 세계에서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이들 6명 작가에 대한 평가를 이날 발제를 통해 정리해본다.



### ▲김상용(1902~1951) 미발표 시 등에 재평가돼야

'남으로 창을 내겠소'로 기억되는 김상용은 생전에 '망향'이라는 빈약한 시집만을 유일하게 발간했다. 27편의 많지 않은 시 그리고 대부분 짧은 시를 담고 있는 '망향'의 빈약함을 김상용을 단발시인 혹은 아마추어 시인이라고 평가하게 만든다.

하지만 이날 김상용 시에 대해 총평한 황현산 교수는 "시집 '망향'에 수록되지 않았던 여러

편의 시 가운데 수록된 시보다 그 질의 면에서 손색이 없으며 때로는 능가하는 많은 작품들이 숨어있어 그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김소월(1902~1934) 통일시대 우리문화표상

김소월 작품을 대해 발제를 맡은 김대행 교수는 현재 시점에 맞춰 그의 작품을 논했다. 김 교수는 "시인 김소월이 통일의 시대와 세계의 시대를 버티어 갈 구실을 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소월의 시가 우리 문화의 대표로 삼을 만한 상징적인 것이라는 뜻이다.

그만큼 김소월은 외래어가 홍수처럼 밀려오던 시기에 외래어 사용을 금욕적으로 절제했다. 그는 우리의 고함에 자라났고 그래서 문득문득 뒤를 돌아보게 한다. 김소월은 우리의 민족 시인이자 터주 시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 ▲정지용(1902~?) 20세기 최초 전문적 시인

시 분야 발제를 맡은 유종호 교수는 시인 정지용을 '20세기 최초의 전문적 시인'으로 평가했다.

유 교수의 발제에 따르면 정지용은 자기 나름의 시학과 시인됨에 대한 자각을 가지고 출발했으며, 시작 행위를 예술 행위로 의식한 최초의 전문적 시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에게 시는 사춘기 감정을 무절제하게 토로하거나 축축한 감상주의에 탐닉하는 일이 아니었다. 그는 엄격한 기율을 스스로에게 부과하여 적당하고 경제적인 언어 구사를 통해 개개 시편의 완벽성을 지향했다. 그리하여 그 이전의 시가 가지고 있는 정형적 요소나 옛 가락은 정지용에게 와서 극복된다. 고전주의 전통이 결여되어 있는 우리 시에 고전주의적 엄격성의 분을 보여준 것이다. 때문에 시의 일반적 수준이 정지용 이후 한 수 높아지게 되었다고 평가된다.



### ▲나도향(1902~1927), 주요섭(1902~1972) 체험문학비교문학의 만남

나도향과 주요섭을 비교한 최유찬 교수는 나도향 작품을 체험문학으로 주요섭 작품을 비교문학으로 평가했다.

우선 나도향의 소설은 작가의 자기 표현, 표현적 특질이 두드러진 체험문학이라고 할 수 있다. 낭만주의적 상상력의 한 예증이라고 할 수 있는 마왕을 등장시키며 근친애를 표현한 초기의 문학에서부터,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웃음으로 죽음을 맞음으로써 이승의 신분적 질곡과 갈등을 정신적으로 승화시키는 벼어리 삼룡이에 이르기까지, 그는 자신의 체험적 진실에 근거한 하나의 주제를 일관되게 추구했다.

이에 반해 주요섭의 소설은 관찰자적 시점이

많이 등장한다. '사랑 손님과 어머니' '아네모네의 마담' 등 남녀 사랑 문제를 다루고 있는 작품에서 관찰자의 시점은 인물들의 미묘한 감정 구조를 포착하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둘은 정상 부근에서 서로 매우 가까워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체험이라는 확고한 바탕 위에서 문학의 길을 개척한 나도향은 점차 여러 사회적 사실들을 자신의 소설 속에 끌어들이지 않으면 안 되었으며, 주요섭은 이국의 생활을 관찰하는 데서 얻은 방법을 자신의 문학에 도입하여 성공을 거두었다.



### ▲채만식(1902~1950) 민족현실에 대한 깊은 고민

채만식에 대한 최근 연구에서 두드러진 점은 채만식에 대한 과거의 긍정적 평가 편향성을 비판하며, 부정적 측면의 평가에 관심을 갖는다는 점이다. 부정적 평가 요점은 작품 속에 나타난 역사적 전망의 추상성과 대일 굴종에 대한 것이다.

하지만 이날 채만식과 그의 작품에 대해 발제한 이주형 교수는 그를 "근대작가 가운데 민족현실과 관련하여 가장 깊고 긴 지식인적 고뇌를 보인 사람이며, 그 고뇌를 모두 문학적 성취로 연결시켜 놓은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문학 평론가 손정수 씨는 최근 알려진 채만식의 초기 소설 '박명' '수돗물' 등의 특징과 그 의미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이 작품들은 채만식 소설 세계의 전체적 지평을 새롭게 검토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tellme@dongguk.edu



유지나 교수의 한국영화사(3)

## 나운규와 '아리랑'

해방전 한국영화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영화인은 춘사 나운규이다. 배우이자 시나리오작가, 감독이자 제작자로서 전천후 영화인 역할을 한 그의 존재 가치는 '아리랑' (1926, 조선키네마제작사)이라는 흥행절차과의 관계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일제 강점기에 영화인으로 맹활약한 나운규가 항일 독립정신으로 무장한 인물이며, '아리랑'이 당시 삼엄했던 일제의 검열을 피해가면서 조선민중의 아픔을 달래준 민족영화이며, 바로 나운규가 그 감독이란 점이 필름과 문서를 통해 온전히 드러난다면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상당한 분량의 해방 전 영화 프린트를 소장하고 있는 일본인 아베가 자기 컬렉션에 '아리랑'이 들어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런데 일단 다 알다시피 '아리랑'의 프린트는 찾을 수가 없다.

한국의 영상자료원과 영화전문가들이 여러 통로를 통해 그로부터 프린트를 받으려 했지만 아베의 말은 상황에 따라 달라져 더욱 헛갈리게 만든다. 그는 그때 그때 핑계를 대며 '아리랑'을 갖고 있다는 말 자체로 파워게임을 즐기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영화사 연구가 반드시 필름이란 증거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2차 자료인 문건을 통해서 접근해보자. 당시 '아리랑'을 선전한 신문 자료엔 엔 모리 슈이치란 일본인이 감독으로 등장하고 있다. 나운규는 주연과 각본을 맡은 것으로 신문광고에 등장한다. 만일 신문광고를 그대로 믿는다면 '아리랑'은 일본인 영화사 제작의 일본인 감독 작품이 되어 온전한 한국영화라고 보기 힘든 식민지 하의 뛰어난 흥행 영화가 되는 셈이다.

그러나 그간 한국영화사에서 나운규는 특히 '아리랑'의 감독이란 점에서 민족영화인으로 추앙되어 왔다. 그 근거는 삼엄한 검열을 피하기 위해 나운규 대신 일본감독 이름을 내걸었고(대명 연출), 나운규 본인을 비롯하여 당시 그와 같이 활동했던 영화인들이 훗날 '아리랑'의 진짜 감독은 나운규라고 증언하고 있다는 점이다.

혹자는 '아리랑' 필름만 찾으면 모든 것이 확인된다고 말한다. 그런데 신문광고처럼 자막에도 감독 이름이 쓰여 슈이치로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그러면 오히려 '아리랑'에 대한 아우라가 벗겨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예 '아리랑'은 영원히 찾지 못한 필름이 되어 민족영화인 나운규의 항일영화 '아리랑'으로 신화화되는 것이 낫다는 자조적인 말도 나온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는 안된다. '아리랑'의 프린트가 있는가 없는가를 떠나 나운규와 '아리랑'을 재평가할 필요는 있다.

나운규는 일제에 대한 일정한 저항을 했지만 일본 자본 시스템 속에서 영화를 만드는 타협을 하기도 했다. '아리랑' 역시 제작 주체의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관객론의 관점에서 보는 이들이 느꼈던 정서적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

이런 관점의 변화야말로 부실한 자료와 믿기 힘든 구술에 의존하는 초기 한국영화사 연구에 필요하다.

한보라 기자 hviolet@dongguk.edu

## 제5회 비판사회학대회

# 김대중 정부 정책 평가와 과제 제시

비판적·진보적 학문하기를 추구하는 한국산업사회학회(회장=서관모·충북대 사회학)가 지난 27일부터 이틀간 '정치변동과 사회개혁'이라는 주제로 제5회 비판사회학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주요 논의대상으로 다룬 '김대중 정부의 정책평가와 사회개혁의 과제' '대선과 정치변동'과 함께 총 60여 편이 넘는 다양한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경제·노동·사회복지 정책 등으로 살펴본 현 정권 평가에서는 대체로 비판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정부주도의 구조조정'이라고 김대중 정권의 경제정책을 단적으로 표현한 김형기(경북대 경제학) 교수는 "은연간 합병으로 금융산업 대형화가 진전돼 경제력 집중을 억제한다는 애초 목표와 정반대 결과를 초래했

다"고 지적했다.

노동정책의 전개과정을 발제한 노중기(한신대 사회학) 교수 역시 "정권 전반기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은 노사정위원회 중심으로 한 합의, 개혁의 담론으로 은폐되다시피 했고, 후반기는 노동조합 활동 자체를 통제했다"며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내려지기도 했다. 윤도현(현도사회복지대 사회학) 교수는 "전국민 연금 적용, 고용보험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등을 통해 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사회복지 서비스를 통한 소득 불평등 해소 노력은 부족했다"며 향후 개혁의 방향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대선과 정치변동' 토론에

서는 대선과 정치구조, 정당구조, 지역감정의 변화에 대해 전망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했다.

한편, 과거 진보진영의 폭력성을 문제 삼은 문부식 당대비평 편집위원의 주장을 놓고 벌어진 '우리 안의 파시즘' 논쟁이나, 동아시아 신외교론에 대한 모색과 함께 이슬람근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구조적 연관성 등을 다룬 '이데올로기' 논의도 활발히 이뤄졌다.

이와 관련해 학회 감사로 활동하고 있는 본교 강정구(사회학) 교수는 "이번 학술대회는 우리 사회의 정세와 제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해 나아가 갈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보라 기자 hviolet@dongguk.edu



## 21세기 지식인 사전

### 사회학자 장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

영상 산업과 컴퓨터, 인터넷의 발달로 가능해진 현실에 대한 모사나 이미지, 즉 '시뮬라크르'가 거꾸로 현실이나 실재를 지배한다는 '시뮬라시옹(simulations)' 이론, 포스트모더니즘의 핵심을 꿰뚫은 것으로 평가받은 이 이론을 주장한 사람은 바로 프랑스의 저명한 사회학자이자 형이상학자인 장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74)이다.

1929년 프랑스 랭스 지역에서 태어난 보드리야르는 66년 파리 10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아 87년까지 교수로 재직하며 저작활동을 벌였다.

1970년에는 '시뮬라시옹'과 함께 그의 대표적 저작으로 손꼽히는 '소비의 사회'를 발표했다. 이는 60년대 신자본주의와 함께 변화하기 시작한 프랑스 사회의 소비생활을 독창적이고 날카로운 시각으로 비판한 책이다.

보드리야르는 이외에도 '기호의 정치경제학 비판' '생산의 거울' '상징적 교환과 죽음' '침묵하는 다수의 옆에서' 등 현재까지 많은 작품을 발표하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린 '미디어시티 서울 2002'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하기도 했다. 이 행사 심포지엄에서 보드리야르는 현실이 과다 이미지 아래 실종되고 있다는 '이미지 폭력'을 주제로 발표했다.

## 학술 기획



작자 : 성춘향

### 본문

이 책의 작가는 정말이지 우리의 것을 사랑하는 듯하다. 책의 곳곳에서 우리의 것에 대한 감탄과 찬사를 쏟아내고 있으니 말이다.



작자 : 이봉룡

### 본문

이 책의 작가는 정말이지 우리의 것을 사랑하는 듯하다. 책의 곳곳에서 우리의 것에 대한 감탄과 찬사를 쏟아내고 있으니 말이다.

## 표지와 작성자는 다르지만 내용은 같은 리포트, 여러분도 보셨습니까?

## 리포트 베껴쓰기는

## 엄연한 표절행위입니다.

# 동아리 부활, 대학문화 르네상스를 꿈꾸며

## 대학생활 필수코스에서 다수 문화 중 하나로 전략 ... 열린 체제로 탈출구 찾아야

총무로써서 등교하다보면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건물이 있다. 군데군데 페인트칠이 벗겨지고 강퍽하게 언덕위에 올라앉아 불상사냥기 그지없는 학생회관이 바로 그 건물이다. 언젠가 영광스럽던 시절도 있었을 법 하지만 그 안에 자리잡고 있는 동아리들의 현실을 대변하듯이 촌스럽고 을씨년스럽기 그지없다.

대학의 동아리는 대학의 설립과 함께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즉 우리대학의 경우 일제시대에도 지금 같이 체계적이지는 않더라도 뜻이 맞는 학생들끼리 모여 농촌봉사나 예술활동, 또는 독립이나 불교혁명운동 등을 했었고 이러한 것들이 현재 동아리 활동의 시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격적인 의미에서의 동아리(당시에는 씨클)들은 대학들이 대학다운 모습을 갖추고 학생수도 많이 늘어나는 50년대 후반이 돼야 비로소 생겨나기 시작한다.

우리대학의 경우 55년 선무부, 56년 농어촌연구부, 58년 동국문화회, FODE, 산악부, 62년 불교학생회, 65년 KUSA 등이 창립돼 69년에는 등록된 씨클이 도합 18개에 1천 200여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이 시기의 동아리 활동은 국가 재건이라는 시대적 이념에 걸맞게 농촌봉사나 선거참여독려 및 감시와 같은 계몽운동이 그 활동의 주류를 이루었고 이러한 양태는 70년대 중반까지 이어진다.

70년대는 국가적으로 경제사정이 나아지고 따라서 대학의 규모도 커짐에 따라 동아리들은 황금기를 맞이한다. 학생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좋아진 경제여건에 따라 동호회 활동들이 대학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였는데 HAM, 극예술연구회, 동그라미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한편

으로는 학내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단체인 씨클이나 비공식 언더씨클을 중심으로 저항적인 정치활동도 늘어나고 있었다.

그러나 8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학의 분위기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바뀐다. 10.26과 5월 항쟁을 맞으면서 급격하게 커진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학내에 자리잡으면서 총학생회가 부활하여 정치투쟁의 선봉에 서게 되고 이러한 정치투쟁의 연장선에서 민주사랑, 맑스철학연구회 등이 생겨나게 된다.

90년대 들어서는 80년대의 학내의 투쟁과정에서 단과대학과 학과 중심의 공간이 생겨나면서 신입생들이 학과 중심의 활동으로 몰리고, 한편으로는 정치투쟁에 염증을 느낀 학생들이 동아리를 외면하게 된다. 교내에 별도의 활동공간을 보장받았던 동아리들이 그 우월적 지위를 상실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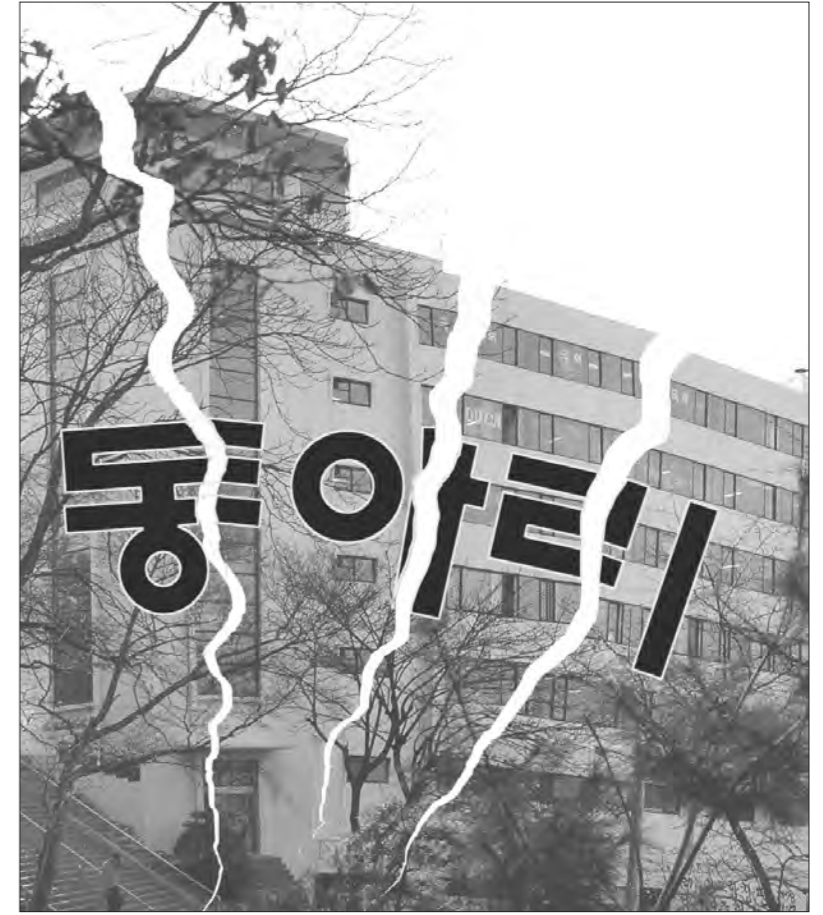
또한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대학 신입생들은 고교시절까지 누려보지 못했던 낭만과 지적 유희, 사회봉사 등을 동아리 활동을 통해 경험할 수 있었으나 90년대 이후 이는 더 이상 대학 신입생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 아니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 과거의 신입생들에게 동아리활동은 알찬 대학생활을 위한 필수코스였으나 이제는 여러 대안 중 하나일 뿐인 것이다. 대가족제도의 해체와 민주화의 진전, 대학생 수의 증가, 학부제의 도입 등과 같은 대학 내외적인 변화에 따라 학생들은 이전과 달리 학점이나 취업과 같은 개인적인 일과 가볍고 부담 없는 일에 몰두하게 된 것도 동아리방을 썰렁하게 만든 이유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동계구름이나 손짓사랑회 같이 순수취미 혹은 전문봉사동아리들이 생겨나고 호응을 얻기도 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과거처럼 활발한 동아리문화를 재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학교가 인가 하던 체계의 연장선에서 동아리연합회가 새로운 동아리를 심사하는 그 시스템부터 바꿔야 한다. 일정한 조건만 갖추면 누구나 자유롭게 동아리를 만들고 활동할 수 있는 열린 체제로 가야 동아리 문화가 다시 꽃필 수 있다. 현재의 제도로는 결코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동아리가 생겨나고 활발히 활동할 수 없다.

또 다른 관점은 문화 다양성과 형평성의 문제다. 학생수가 우리 대학의 2배에 불과한 UCLA에는 무려 600여 개 동아리가 있다고 한다.

많은 동아리가 신입회원을 확보하지 못해 썰매면서도 각각 방을 하나씩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동아리들은 활동에 상당한 제약 받고 있는 우리 현실과 약 600여 개의 동아리들이 학생회에서 관리하는 Meeting Room을 필요시마다 예약해 사용하는 체제를 비교해 보면 문제의 해답은 분명해 보인다.



기존의 동아리들이 과감하게 기득권을 버리고 함께 고민하기 전에는 결코 이전과 같은 번성을 다시 누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박상관 서울캠 학생선발실 과장·80년 불교학생회 회장

7.80년대 대학문화를 이끌어 가던 동아리가 90년대 이후 위기에 봉착했다. 특히 90년대 말 IMF, 학부제 도입 등 대학 대내외적인 변화의 물결은 동아리의 위기를 더욱 부추겼다. 동아리에 대한 학생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학기 초 신입회원을 모집하는 광고가 학내 곳곳에 눈에 띄곤 하지만 실제 학생회관 동아리 방을 찾는 학생들은 손에 꼽을 정도다. 동아리들 역시 이 문제에 대해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팔짱만 끼고 있을 따름이다. 이에 동아리가 직면한 위기의 원인을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해 본다.

편집자

### 동아리 이것이 문제다

# 차가운 무관심 속 '사람' 없는 동아리

## 안 - 권위적, 폐쇄적 운영으로 학생들 외면 밖 - 미미한 학교지원과 공간부족

대학문화의 꽃이라 불리던 동아리가 학생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점점 그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이에 본사 기획부는 좌담을 통해 동아리 위기의 원인을 짚어보고자 한다.

**△백중혁(이하 백)** = 현재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는 동아리를 찾는 학생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으시겠지만 저학년으로 갈수록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해 동아리라는 단체에 소속되기보다 혼자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강하죠.

**△김은아(이하 은)** = 입학 전만 해도 대학이라고 하면 동아리가 가장 먼저 떠올랐고 '어느 동아리에 가입할까'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막상 입학을 하고 보니 모집단위평화화로 인해 전공결정을 해야하는 입장에 놓이게 됐고 원하는 전공을 선택하기 위해서 학과공부에 신경을 써야했죠. 그러다 보니 동아리 활동을 한다는 게 부담스럽더라고요.

**△사회자** = IMF나 학부제가 실시되던 시기를 기점으로 동아리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백** = 제가 대학에 입학했던 때만 해도 IMF전이라 학생들이 취업 때문에 고민하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학과공부 외에 동아리나 소모임을 찾는 일이 많았거든요. IMF나 학부제 실시로 학생들이 많이 바빠진 건 사실이지요.

**△김준오(이하 김)** = 동계구름 역시 몇 년 전만 해도 각종 가요제에 참가해서 수상도 하고 대외적인 활동이 많았어요. 그때는 순수하게 음악이 좋아서 모인 선배들이 많았고 그만큼 동아리에 대한 애착도 강했죠. 그런데 요즘 친구들을 보면 평가 해보겠다는 성취욕은 찾아볼 수 없고 여가생활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식적인 모임 같은 자리에 제대로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사회자** = 시대가 변하면서 학생들 역시 많이 변화한 것이 사실입니다. '자유' 개인주의'로 대변되는 것이 요즘 학생들인 만큼 동아리라는 조직 자체에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영남대 기자

**△정유진(이하 정)** = 저는 동아리에 가입했다가 중도에 포기했어요. 동아리가 생각보다 권위적인 면이 있더라고요. 제가 속해 있던 동아리의 경우 술을 먹는 규칙까지 정해져 있었어요.

**△김** = 동아리가 학과보다는 권위적인 것이 사실이에요. 학번보다는 가입시기를 더 따지기도 하고 선후배 관계가 엄격하죠. 그렇지만 동아리 생활을 2년째하고 있는 지금 과선배보다는 동아리 선배가 더 살갑게 느껴져요. 혼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쌓이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은** = 저는 2학년 때 동아리에 가입했거든요. 그런데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일단 신입생 위주로 동아리가 운영되다 보니 저같이 뒤늦게 가입하는 사람은 적응하기 힘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동아리가 좀 폐쇄적인 것 같기도 해요.

**△김** = 맞아요. 저희 동아리도 얼마전 신입생을 선발했는데 저와 같은 학년 친구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온 사람은 학번과 관계없이 같은 새내기로 여기거든요. 그래서인지 신입생 환영회 이후에 동아리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사회자** = 요즘 대학생들은 인터넷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N세대잖아요. 굳이 동아리

와 같은 부담스러운 단체보다는 클릭 한번으로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인터넷 상 동호회 활동도 활발한 것 같아요.

**△정** = 저도 다음 카페 활동을 하고 있어요. 맘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재미로 가입했다가 요즘에는 정모도 나가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권위적인 상하관계도 존재하지 않고 자유롭게 사별을 사귀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백** = 인터넷 상에서 가볍게 활동할 수 있는 모임이 많아진 것은 사실이에요. 요즘에는 중앙동아리 외에도 각과마다 소모임이 많이 조직되어 있어서 동아리에 사람이 더욱 적어진 것 같아요.

**△사회자** = 그래도 동아리와 소모임은 많은 차이가 있지 않나요? 동아리의 경우 학교에서 지원도 하고 동아리방도 있었어요.

**△김** = 한 동아리당 17만원의 지원금이 나오고 있던 하지만 거의 없는 거나 다름없다고 봐야죠. 공연동아리 같은 경우 학기마다 정기공연을 하기 위해서 몇 백 만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부족한 자금은 회비에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은** = 공연 동아리의 경우 직접 공연을 하면서 홍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 같은데,

수동적으로 대자보만 붙이고 학생들을 기다리기 보다 능동적으로 직접 학생들을 만나는 거죠. 그런데 그런 활발한 활동을 벌이기에 학교 지원금이 너무 적은 것 같네요.

**△백** = 학교가 동아리 사업에는 자금 지원을 하고 있지 않아요. 대신 동아리 분과별 사업에는 지원금이 나오고 있죠. 분과끼리 공연을 한다거나 전시회를 갖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기는 하지만 활성화 된다면 학교에서 지원도 받을 수 있고 홍보효과도 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자** = 최근 학생들의 성향에 맞게 개발하고 재미있는 동아리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각 동아리마다 개성도 점점 뚜렷해지는 것 같은데요.

**△정** = 마술, 당구, 라틴 댄스 동아리 등 학교 계시관을 통해 모집공고를 본 적이 있어요. 정말 눈길을 끄는 동아리가 많더라고요.

**△백** = 현재 동아리 연합회로 정식 동아리 신청을 해온 신청동아리는 정말 많아요. 그런데 준 동아리 인정은 해주지 못하고 있죠. 아시다시피 학생회관이 만원상태잖아요. 공간 문제로 인해 동아리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 안타깝죠.

**△사회자** = 지금까지 동아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살펴봤는데요. 학교의 지원이나 공간 확보 등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동아리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변화가 가장 시급한 문제인 것 같아요.

**△백** = 동아리 활동이 자신의 대학생활에서 불필요하다고만 여겨진다면 어쩔 수 없겠죠. 하지만 득과 실을 잘 따져보고 결정해야 할 것 같아요. 동아리 활동을 하면 학과 공부나 과에서의 활동을 포기해야 한다는 고정관념도 많은 것 같은데 모든 것은 자기 노력 여하에 달려 있는 거겠죠.

**△김** = 동아리 활동을 하다 보면 어렵거나 힘든 일이 있긴 마련이지만 그만큼 보람도 많아요. 동아리 활동을 '힘든 일'로 여기기보다 '즐거는 놀이'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정리·사회=김혜진 기자 atom@dongguk.edu

●● 학생들의 심각한 개인주의가 동아리 위기 초래 ●●



백중혁(경영3) 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

●● 학년·학번 넘어 '열린' 동아리 돼야 ●●



김은아(영문3)

●● 동아리부터 권위적인 모습 버려야 ●●



정유진(영문2)

●● 재정난이 동아리 활성화에 가장 큰 걸림돌 ●●



김준오(정영2) 창작음악동아리 동계구름 회장

변화를 피하는 발빠른 동아리



“주식관련 연구와 토론으로 경제·사회 보는 안목 길러”

한양대 증권동아리 스타퀴즈.

요즘 주식투자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제는 직장인뿐만 아니라 대학생, 가정주부에게도 재테크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시대 변화에 따라 각 대학에도 증권 동아리가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했다. 그 중 현대증권 주최 '대학생 실전 증권투자대회'에서 2연패한 한양대 증권 동아리 '스타퀴즈' 회장 주자욱(경영3) 군을 만나 주요활동과 앞으로의 활동방향에 대해 들어보았다.

- '스타퀴즈'의 창립 과정은 어떠한가.
= 대학생들 사이에 재테크 열풍이 불자 본교 학생들도 주식투자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이런 흐름에 맞춰 지난 99년 상경대 선배 10여 명이 주식투자에 대해 배우기 위해 '코스닥'이라는 증권 소모임을 만들었다. 이후 학생들의 호응이 높아지자 2000년에는 '스타퀴즈'라는 동아리로 발전시킬 수 있었다.

-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 크게 주식관련 공부와 친목도모 활동 등 두 가지로 나뉜다. 매주 화요일 또는 금요일에 신입부원들의 주식투자교육을 위한 '하수사관학교'를 열고, 수요일에는 회원들이 한 주 동안 주식투자에 대해 공부한 내용을 발표, 토론하는 정기세미나를 갖는다. 또한 한 학기에 한 번씩 공개세미나를 개최해 교내 학생들과 함께 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이밖에도 부동산, 주식관련자격증, 영어 등도 함께 공부하는 중이다. 세미나 외에도 친목도모를 위해 체육대회 등 회원

들간의 모임을 자주 갖고 모임이 없는 날은 인터넷 카페를 통해 만나고 있다. 선·후배간의 만남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한 '후배 박사자기' 이벤트 역시 회원들간의 유대관계를 위해 생각해낸 것 중 하나다.

- 동아리 활동을 통해 배우고 느끼는 것이 있다면.
= 실전대비 투자방법 외에도 주식투자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기업들의 기술, 환경분석을 하고 이를 통해 실물경제를 바라보는 눈을 키울 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무관심했던 경제·사회의 흐름을 익히게 됐다.

또한 다른 동아리와는 달리 학년과 나이에 상관없이 편입·삼수·사수생들에게도 활동의 문을 열어 줬다. 다양한 연령대의 회원들과 끈끈한 정을 느끼며 활동하고 있다.

- '스타퀴즈'의 활성화화를 위한 앞으로의 계획은.
= 동아리의 인지도를 더욱 높이고 그동안 연구하고 공부했던 성과들을 학생들에게 알리기 위해 학회지를 만들 예정이다. 그리고 다른 대학 증권 동아리와 모임을 가져 연구한 내용을 공유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보다 전문적인 실력을 쌓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평소 배우고 익힌 것들을 검증 받기 위해 매 학기마다 열리는 대학생 모의투자대회에 계속 참가할 계획이다.

최성민 기자 kwertewa@dongguk.edu



중앙대 풍물패 소래열.

“보여주기 위한 공연에서 함께 즐기는 신명으로”

80년대 대학문화 부흥의 한 축을 담당한 풍물패가 최근 학생들의 무관심으로 침체기를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동아리가 있다. 중앙대 풍물동아리 '소래열'. 이에 소래열 회장 황영재(전자전기2) 군을 만나 그들의 노력과 활동,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보았다.

- 변화는 어떤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인가.
= 최근 몇 년 동안 전통문화의 동아리들이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동아리의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신입생 수가 실용음악을 하는 인기 동아리에 비해 턱없이 적고 갈수록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특히 '풍물패'는 곧 운동권이라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 굳어져 있어 활동하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

사회모순에 대한 저항이 풍물의 뿌리깊은 정신인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학생들이 지닌 학생운동에 대한 거부감으로 사회비판의식을 자제를 부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여겼다. 때문에 그러한 잘못된 인식 자체를 바꿔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 변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 풍물은 '생각'하는 예술활동이고 취미활동이며 그 자체의 흥을 즐긴다는 것을 강조해 신입생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더불어 회원들이 연대감을 갖고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동아리 교유의 색깔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방학을 이용하여 남원과 같은 풍물의 본고장을 찾아가 기술을 전수 받기도 하며 말로만 전해져 내려오던 교육내용들을 문서화하는 작업도 하고 있다. 또한 풍물 연습 후에는 항상 평가하고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 주 활동인 공연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 주변의 시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자는 뜻에서 '주체성을 갖자'는 주제로 정기공연을 열었다. 이번 공연은 예전의 줄거리 형식의 공연과는 달리 기원의식의 형태로 마련했다. 단순히 관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공연이 아닌 예전에 농촌에서 온 마을 사람들이 어울려 즐겼던 것처럼 일반 학생들도 함께 할 수 있는 마을굿 형식으로 꾸며냈다. 처음으로 시도했는데 의외를 두고 계속 보완해 가면서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노력 중이다.

-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 관객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 방식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 규모는 작더라도 많은 교내공연을 하여 사람들에게 풍물의 즐거움을 알리고 그동안 인식을 바꿔나가고 싶다. 풍물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매력을 학생들에게 알리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역할이고 앞으로의 지향점이다. 그 일환으로 11월에 있을 대학생 풍물경연대회에도 참가해 볼 생각이다.

〈석〉 kauri21@dongguk.edu

설문조사 분석

20세기 속 동아리

21세기를 사는 대학생

본교 재학생은 서울 경주 캠퍼스를 합해 2만 여명. 이중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은 7천 여명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동아리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알아보고자 본사는 본교 1, 2학년 재학생 28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전체 설문조사 대상자 중 동아리 가입자가 140명 비가입자가 142명으로 각각 절반의 비율을 나타냈다. 이는 전체 학생 대비 동아리 가입자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재학년이 동아리 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 4학년의 경우 IMF 이후 취업난이 심해지면서 많은 시간을 학과 공부나 취업준비로 보내야 하기 때문에 동아리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동아리 가입자 140명에게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문제점에 대한 질문에 많은 학생들이 '학교의 지원이 부족하다'고 대답했고 술자리에 대한 부담감 역시 불만인 것으로 드러났다. 본교는 일년에 한 동아리 당 17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동아리를 운영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액수다.

이와 관련해 민속극 연구회 탈 회장 김민희(가교2) 양은 "공연 동아리의 경우 한번 공연을 하게 되면 100만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 학교 지원금으로는 역부족"이라며 "동아리의 특성이 다른데 모두 같은 액수를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한편, 비가입자의 경우 동아리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86명의 학생이 '나만의 여가 생활 등 다른 활동을 하고 있다'를 꼽았고 다음으로 '학과 공부 때문에 동아리 활동할 시간이 없다'고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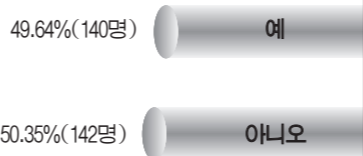
문과대의 한 학생은 "현재 영어학원에 다니고 있고 인터넷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다"며 "동아리 활동을 하면 학과 공부나 그 외의 활동에 너무 소홀하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는 모집단위광역시와 IMF 이후 취업난으로 많은 학생들이 학과공부와 취업준비로 인해 동아리를 '시간낭비'로 여기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뿐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하고 싶은 동아리가 없다'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동아리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등의 답변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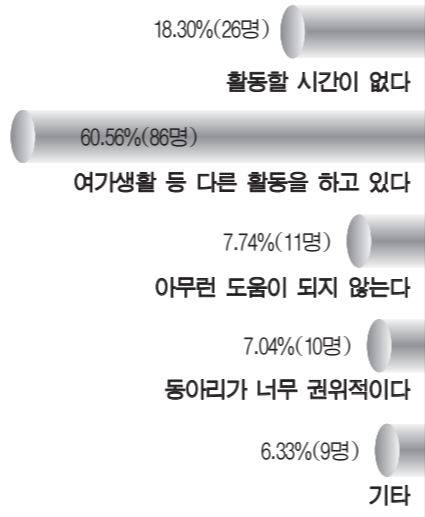
또한 시대가 변하고, 학생들의 관심분야가 다양해지면서 학생들이 원하는 동아리도 각각씩 색이다. '이런 동아리라면 가입할 의사가 있다'라는 문항에 중국어 관련 동아리, 취업 동아리 등의 답변이 많아 학생들이 졸업 후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동아리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테디베어 제작, 스쿼시, 스노보드, 재즈댄스 동아리 등 학생들의 취미도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기획부 special@dongguk.edu

◆현재 동아리에 가입해 있는가?



◆동아리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는?



◆동아리 활동에 어려운 점이 있다면?

- △ 술자리가 너무 많아 부담된다.
△ 학업, 과 생활에 지장이 많다.
△ 1학년 회원수가 너무 적다.
△ 정식 동아리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 물품지원(컴퓨터 등...) 이 부족하다.
△ 상하관계가 너무 딱딱하다.
△ 회원들이 잘 모이지 않아 지속적인 활동이 어렵다.
△ 학생들의 관심이 너무 적다.
△ 동반이 없어 결속력이 떨어진다.
△ 권위의식이 강하다.
△ 동아리들 간 연합활동이 너무 적다.
△ 동아리 내 분열이 심하다.
△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이런 동아리라면 가입할 의사가 있다

- △ 고민 들어주고 함께 이야기하는 동아리
△ 여러 분야를 할 수 있는 동아리
△ 가입절차가 간단한 동아리
△ 술자리 많이 없는 동아리
△ 공부를 체계적으로 도와주는 동아리
△ 다이어트 동아리
△ 인라인 스케이트 동아리
△ 문화비평 동아리
△ 요가 동아리
△ 골프 동아리
△ 맛집 찾는 동아리
△ 테디베어 제작 동아리
△ 레이싱 동아리
△ 전위예술 동아리
△ 스노우보드 동아리
△ 애완동물조련 동아리
△ 요리 동아리
△ 재즈댄스 동아리
△ 솔로탈출 동아리
△ 드라이브 동아리
△ 환경문제 동아리

‘대학문화의 꽃’에 새생명을

지원정책 마련·분과별 연계활동 등 적극적 노력 필요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대학문화하면 떠오르는 것은 단연 동아리였다. 하지만 그 대학문화를 만끽하며 지내던 몇 년 전 졸업생이 지금의 동아리를 본다면 격세지감이 저절로 느껴진다고 할 것이다.

이제는 전성기를 누리던 동아리 문화를 '그때 그 시절' 추억으로만 고이 남겨둘 것이 아니라 다시 '제2의 중흥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하자면 동아리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일 말이다.

■ 재정지원

현재 동아리들은 대부분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다. 지금의 학교 지원 만으로는 동아리를 꾸려나가는 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아리가 활성화 되려면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실제로 몇몇 대학은 학교가 앞장서서 노력하고 있다. 한 예로 부산대의 경우, 지난 99년부터 '동아리 콘테스트'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연 초에 대회 참가를 신청한 동아리들의 1년 간 활동을 평가해 최우수동아리 1팀에는 150만원, 분과별 우수팀 1팀에는 각각 75만원을 상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 부산대 학생처 김진석 학생과장은 "이외에도 소모임을 포함한 전 동아리를 대상으로 전년도 활동과 신년도 계획서를 받아 심사를 거쳐 지원해주는 제도도 실시하고 있고, 1인 1동아리 가입 권장 홍보도 하고 있다"며 "때문에 전체 학부 재학생의 약 60%가 소모임을 포함한 221개에 이르는 다양한 동아리에서 활동하는 등 동아리가 활성화되어 있다"고 말했다.

■ 공간부족

몇몇 동아리들은 자신들만의 동아리 방이 없어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한다. 더군다나 새로운 동아리가 계속 생기고 있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따라서 제한적인 공간을 동아리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봐야 한다. 외국대학의 경우, 개별 동아리 방보다는 학생들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공용 공간의 형태를 띠는 곳이 대부분이다. 각 동아리들이 사용하고 싶은 일시를 정해 미리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는 체제다. 이를 본교에도 부분적으로 도입해 볼 수 있다. 동아리 방이 없는 신생 동아리들에게 공용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 동아리 내부의 변화

동아리 내부의 변화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요즘 학생들은 저마다 각양각색의 가치관을 지니고 있고, 때문에 관심사도 다양하다. 하지만 일부 동아리는 변화하지는 않는 학생들의 성향은 도외시한 채 엄격한 서열



관계나 강제적 술자리 등 옛 사고방식과 권위의식에 젖어 있다. 장시기(영어영문학) 교수는 "자신들의 동아리가 지닌 성격의 본 의미를 찾고 동아리 나름대로의 지향점을 새로이 세워 나가는 일 그리고 현재의 사회적 환경을 반영하려는 시도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동아리를 의미하는 학생들의 눈길을 끌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나 적절한 대응책도 마련해야 한다. 늘 해오던 방식을 그대로 따르는 타성에서 벗어나 색다른 행사를 결합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퍼포먼스를 활용한 동아리 홍보나 동아리 설명회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또한 비슷한 분야의 동아리가 함께 홍보활동을 벌이거나 행사를 추진해 보는 등 동아리 간 연계 활동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분과별 연계 활동도 심사를 통해 학교의 지원이 이뤄지기도 해 좀 더 효과적이다. 구승희(윤리문화학) 교수는 "특히 회원 수가 부족한 철학, 역사 분야 학술동아리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학술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벤트 형식의 설명회를 갖고, 즐겁고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처럼 동아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현 상황에 대한 문제 인식과 더불어 구체적 실천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 여러 노력과 시도로 동아리가 변화해 간다면 '새 생명'을 얻는 것이 불가능한 일만은 아닐 것이다.

한보라 기자 hviolet@dongguk.edu

소나기

남북이 함께 하는 아시안게임, 가장 감동적일 순간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개막식에서 남북이 공동 입장하는 모습을 생각할 때!!
△남북한이 결승에서 만났을 때.
△리명훈 덩크할 때.
△계순희가 다시 한번 금메달 획득할 때.
△한국 축구가 북한을 꺾을 때.
△남북 선수단 사이에 썬 케플 생길 때!!
△남북이 공동으로 우승.
△한반도기에 뛰어난 남북의 동시 입장.
△남·북 축구 결승 진출.
△2002년 영광의 신화는 계속된다.
△승패를 떠나 같이 손잡고 응원할 때.
△경기장에 아리랑이 은은히 울려 퍼질 때.
△범석이 금메달 따던 날.
△관중석에 휘날리는 한반도기.
△남과 북의 농구대결! 이명훈 선수와 김주성 선수의 맞대결이 무척 기대된다.
△대~한민국 대신 통~일조국을 외친다면.
△우리나라 경기에 북한 선수들의 응원이 있다면.
△목표가 중국에 이은 2위라고 하는데... 2위라는 숫자보다 월드컵 때 보여준 한국인의 힘을 보여준다면 이보다 감동적인 일이 있었나요?
△남과 북이 하나로 모이는 자체가 통일로 가는 작은 시작으로 감동되고 싶다.
△한반도기 보다는 호랑이기를 만들면 어떨까??
△우리 집에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이 없어 뿔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데 무슨 감동!!!
△중국?? 남북 메달 합쳐서 무너뜨리고 조국통일!!
△중계할 때 북한 방송하고 같이 할때 진정한 감동 받을 수 있겠지...
△남과 북이 하나되어 응원하는 모습을 본다면 감동스럽지.
△짜짜 짜짜짜~ 월드컵 때 하나였던 만큼만 남북이 하나된다면 그보다 더 큰 감동이 있을까.

서울 ☎ : 2260-3491·2 FAX : 2279-1270
경주 ☎ : (054) 770-2058 FAX : (054) 770-2057
문의·제보 : dgupress@dongguk.edu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3~4매 분량의 글이나 시, 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교료를 드립니다.



동약광장

목격담

축하합니다
△유병문 선배님 결혼 축하드려요.
△우리 이쁜 주형아! 생일 축하해!
△사랑동이
△동국대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OPUS공연을 축하합니다.
△국어 교육과 북한학 심윤숙(응)의 탄신일을 축하합니다.
△9월 30일 블랙홀 아이즈(Black Hole Eyes) 해선이 생일이예요!! 해선이 사랑해!!
△개천절날 태어나신, 승택오빠 생일 축하해요!!
△사회과학부의 카리스마 조익수 군의 생일(10/2)을 축하합니다.
△9. 24 수학과 문경이 생일 축하해요.
△주영이, 자동차극장 첫 입장 축하 country girl!
△치섭아, 데뷔 축하해.

수고하셨습니다
△학림축전 열심히 준비하신 부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부들 파이팅!!
△예술대 '도식락' 축전과 미술 반점에서

최근 종로구청이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과징금 750만원을 스타벅스 인사동 지점에 부과해 논란이 일고 있다. 종로구청은 다국적기업인 스타벅스가 인사동 문화지구를 훼손한다는 취지로 부과한 것인데 지역문화를 지키기 위한 움직임은 인사동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한 서명운동도 있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러나 스타벅스는 연일 만원이다. 왜일까. 스타벅스 커피가 맛있다는 것을 마셔본 사람이라면 알기 때문이다. 기존 맥심 커피와는 차원이 다른 스타벅스 커피의 맛은 미국을 갈수록 깊숙이 자랄 뿐 아니라 다양하기도 하다.
운영양식도 이전의 커피전문점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일회용 용기, 테이블 아웃, 셀프서비스, 금연, 어디에서나 같은 모습, 같은 맛, 다국적 기업, 꼭 맥도날드의 운영양식과 흡사하다. 스타벅스뿐만 아니라 승승장구하고 있는 다국적 음식점 체 사정도 비슷하다.
버거킹, KFC, 웬디스, 하디스, 피자헛 등 인스턴트음식업체부터 씨즐라, 베니건스, TGI, 토니로 마스, 카르네스테이션, 코코스, 루비류즈데이, 이쁘뿌따뮤스 등 패밀리레스토랑까지.
그렇다면 그 맛의 비결은 무엇일까. 좀더 고급스런 원료와 기술? 그러나 그 이면에는 신자유주의란 미국적 가치관과 삶의 방식 그리고 값싼 원료와 노동력을 기반으로 한 초국적 기업이란 운



논단
정은희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상근 활동가

스타벅스와 신자유주의

영향태가 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다국적 음식점체의 본질이며 그 영향은 자못 근본적이고 또 심각하다.
먼저 신속하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은 보다 개인이 노동에 투자할 시간을 늘려 준다.
아주 기능적이지만 그 뿐이다. 소비자는 빨리 배를 채우고 기업은 현금으로 빨리 돈을 버는 것이다. 신자유주의가 요구하는 경제적 기능인에 적합한 먹거리인 것이다. 삶의 근본으로의 성찰과는 관계가 멀다.
반면 고가의 패밀리레스토랑은 여유를 상징한

다. 고객을 귀찮여져 모시며 서구적인 메뉴 및 장식으로 생계, 노동탄압, 인권유린, 주한미군, 분단 등의 문제와는 관이한 이미지를 부여한다. 그리고 이들 업체는 포인트 등으로 국내 거대기업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한편으로는 80년대 말부터 대거 침투되고 있는 다국적기업의 운영양태와 맞아떨어져 국내 노동조건을 더욱 악화하고 있다. 외국계 기업이 국내 일자리를 늘린다는 주장이 긍정적인 측면으로 제기되고는 있지만 항상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저임금 비정규노동자들을 대거 양산할 뿐이다.

원료 또한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곳이 다반사여서 국내 농업에 악영향을 미쳐왔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는 그 원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 수 없다.
또한 국내 음식문화를 획일화시키고 있다. 영화에 스크린쿼터제가 있지만 음식계에도 쿼터제가 필요할지 모를 만큼 다국적 기업의 국내 음식점 점유율은 매우 과격적이다.
지역의 음식문화는 천덕꾸러기로 변하거나 제2의 음식자본을 형성해야 살아남는다는 강요를 받는다. 떡, 부침 등 전통음식이 사라져 가고, 김가네, 용유동, 삼포만두 등 체인점이 늘어나는 것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다시 스타벅스로 돌아가보자. 커피생산지의 노동자의 얼굴, 유통업체 사람들의 땀, 비정규 판매자의 저임금노동은 모두 '스타벅스' 커피의 맛에 용해돼 사라진다.
이런 현실을 같이만든 스타벅스 커피의 맛엔 마시는 이의 생활과는 무관한 그리고 그 생활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가리는 경제적으로 능력있고 삶에 여유있는 미국적 중산층이란 이미지만이 남게 되는 것이다.
자본중심의 세계화와 문화적 획일화를 촉진하는 신자유주의가 인간 삶의 기분을 이루고 있는 음식까지 침투한 것인데... 스타벅스, 마셔야 할까?

오늘의 글

김옥년 (의과대 신경학과 교수)

자비정신으로 사랑 전하는 교수

“의료 봉사 활동이 이제 생활의 일부분인걸요”



원들의 마음 씀씀이를 전한다.
“수해로 인해 길이 사라져 하루동안 고립되어 있었다는 김천 지역민을 찾는 마음이 너무도 급했어요”라며 증산면사무소에 도착해 의료진들을 준비하는데 10분도 채 걸리지 않은데서 나타나는 불교회 회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
맥을 짚어 침을 놓고, 청진기를 가슴에 대며 수재민들의 아픈 곳을 치료하는 40여명의 의료진들은 밥집을 설치하면서 수백 명의 환자들을 돌보았다고 한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위해 방문진료활동도 실시해 진료소를 찾지 못하는 김천 지역민들의 아픔도 함께 하고자 했어요”라고 말하는 김 교수. 또한 그는 아픈 사람들은 너무 많은데, 따뜻한 손길 한 번씩 제대로 내밀지 못한 봉사활동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수재민들의 고통을 함께 하기 위해 그들과 똑같이 컵라면을 먹던 그 순간이 가장 가슴에 와 닿았다”는 김옥년 교수. 의료봉사활동 후 수재민들이 웃으며 희망을 되찾는 모습을 보고서야 부족한 의료봉사활동의 아쉬움을 달랠 수 있었다고 전한다.
1년에 4차례, 삶에 지친 이들을 찾아 떠나는 불교회 회원들의 사랑이 지역 곳곳에 살아 숨쉬길 기대해 본다.
이치현 기자
easy01@mail.dongguk.ac.kr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바탕으로 의료봉사 활동을 통해 소외된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이가 있다. 의료봉사활동 앞에 무료라는 단어가 없으면 봉사하는 마음이 훨씬 가벼울 것이라 말하는 분교 경주병원 불교회 회장 김옥년(의과대학 신경학) 교수.
그는 김천 지역 수재민 의료봉사활동에 나섰던 지난 10, 11일을 떠올리며 불교회 의료봉사활동부터 늘어놓는다. “99년부터 경주 건천 지역을 시작으로 지역민을 대상으로 1년에 4차례씩 순회 의료봉사활동을 했어요”라며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빠지지 않고 다녀온 그의 얘기와 더불어 의료 봉사에서 1명의 환자를 돌보더라도 친절로 베푸는 자세를 중요시 여기는 불교회 구성

장애인 이동권에 관심을 갖자

얼마 전 지하철역에서 열차를 기다리는 도중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그곳에서는 한 아이와 그를 아낀다는 엄마가 보였다. 사정을 알고 보니 꼬마가 장난으로 장애인용 리프트의 스위치를 누른 것이었다. 주위 사람들의 시선은 내려오는 리프트와 아이, 엄마에게로 모아졌다. 그러자 엄마는 아이를 막 나무라기 시작했다.
부모가 아이의 장난을 나무라는 것은 별문제가 없지만, 그 아이엄마의 이유는 장애인용 승강기를 눌러서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된 것이 부끄럽다는 것이었다. 아마도 그 버릇을 늘렸다는 사실로 사람들이 자신들

을 장애인의 가족으로 생각했을까 봐 그게 싫었던 것 같다.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얼마 전 리프트를 이용 중이던 장애인의 사 망소식과,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대학생들이 벌였던 지하철 선로점거 사건 등이 머리 속을 스쳐 지나갔다. 어린아이의 장난으로 벌어진 작은 사건이지만 그로 인해 장애인을 그리고, 자신이 그런 대우를 받는 것조차도 꺼리는 우리사회 구성원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자는 목소리가 사회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지만 아직은 미약한 것이 사실이다. 여전히 사람들은 그들이 우

리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들의 이동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목소리가 더 많은 지지를 받으려면 사람들의 의식 변화를 먼저 끌어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의 여론이 사회구성원들에게 보편적인 지지를 얻을 때 그것의 힘은 더욱 커지고, 그로 인한 사회 변화도 더욱 쉽고 빠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장애인이나 그들의 이동권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어낼 수 있는 운동이 가장 절실한 것 같다.
서경아 (사과대 신병4)

공사소음 관련 해결방안 마련해야

학생들의 복지향상과 관리를 위해서 기숙사 확장은 불가피하다. 이에 경주캠퍼스에서도 오래 전부터 기숙사 신축공사를 계획,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한창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물론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기숙사 신축공사는 우리 학생들에게 반가운 일이며, 빠른 시일 내에 기숙사 공사가 마무리되어 학생들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현재 기숙사 공사로 인한

각종 소음과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물론 사전에 학교측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협조문을 공고하게 발표하였으나,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든다.
협조문에는 단지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양해를 부탁한다는 말 뿐이며, 좀더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은 강구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공사현장 주변에 있는 강의실에서 강의를 받을 때는 그 소음으로 인해 수업진행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공사기간이 하루 이틀에 끝날 일이 아니라는 장기적 측면에서 살펴볼 때,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단지 학생들에게 참고 견뎌달라는 협조만 바라고 있을 것이 아니라, 소음 방지책을 쌓던지, 그것을 예산으로 충당하기 힘들다면 강의시간을 조절하거나 다른 강의실을 이용해 수업을 진행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최규미 (법정대 행정2)

— 우리말을 사랑하는 동국인이 됩시다 —

금주의 식단

Table with columns for location (서울캠, 동국관, 상록원, 교직원, 경주캠), date (월(9/30), 화(10/1), 수(10/2), 목(10/3), 금(10/4)), and menu items with prices.

### 달하나 천강에

### 북녘 고향을 그리며



강병수  
한의대 한의학과 교수

을 한해는 나 개인에게는 매우 뜻깊은 한해였다고 생각한다. 대학의 배려로 연 구년을 가지면서 지난 40년간 한의사로 살아오면서 재미있었던 일,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을 모아 '전통한의학의 뿌리를 찾아서'란 책을 썼고, 그리고 부모님 살아 생전에 그토록 가고 싶어했던 고향 가까이 임진강이 바라보이는 통일전망대위 동화경모공원에 인척들의 묘와 같이 이장 해 드렸기 때문이다.

얼마 전 추석이 되어 부모님 묘소를 찾아갔을 때 북쪽 먼 고향 하늘을 바라보니 북녘 땅에도 가을은 완연히 찾아온 것 같았다. 그런데 요즘 금강산에서는 이산가족이 서로 상봉하는 기쁨과 슬픔에 싸여 있었고 남북한 군부에서는 비무장지대에 지뢰를 제거하고 경의선 철로를 놓는 작업에 들어갔다고 한다.

지금 우리사회 일부에서는 안이하게 너도, 나도 가치를 타고 고향 갈 꿈을 꾸거나, 관광 갈 날도 멀지 않았다고 낙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희망과

현실을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남북한이 체제와 이념이 서로 다른 사회에 살면서 자유롭게 사는 우리들이 마음놓고 이북고향에 찾아가 그리웠던 가족이나 친지를 만나 기쁨을 나누거나 또는 관광차 이곳 저곳 고적이나 자연을 찾아 자유로이 꽃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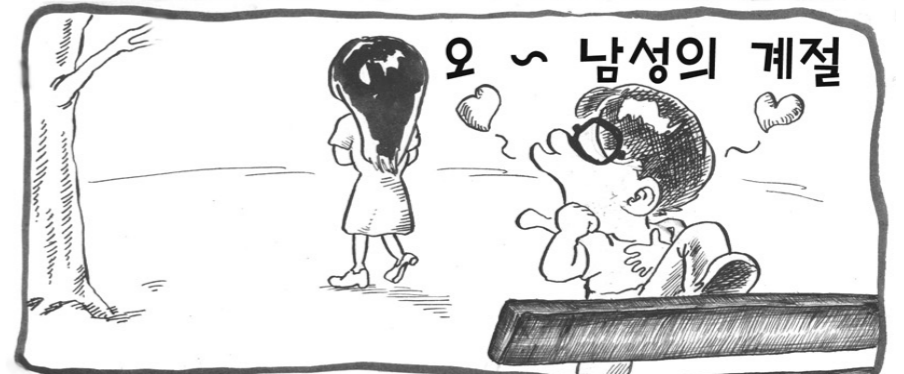
지금까지 우리 역사는 좌파나 우파나 이념논쟁에 시달리면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고, 아직도 정치관에서는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현대는 좌파, 우파가 아니라 한국가의 인류애적 도덕성이 기준이 되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UN회원국으로서 세계와 더불어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쌓아왔고 올림픽을 개최한 다양한 선진국가로서 개인의 자유와 도덕성을 갖춘 국가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 경직된 독재국가이며, 국제적인 테러국으로 지정되는 등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국가적 도덕성을 갖추지 못한 국가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북한 스스로 인간의 삶에 가치와 인권을 존중하는 인류공존의 도덕성을 갖는 국가로 발전하는데 우리 모두의 꾸준한 인내력을 갖고 정신적 물질적 도움을 주어야 한다. 그러한 도덕적 기준이 남북한 사이에 평준화될 때 우리들은 서로 마음을 터놓고 북녘고향을 즐겁게 찾아가 만날 수 있고, 그들도 마음 놓고 우리를 가까이 찾아 올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지금도 가끔 50여 년 전 산언덕을 내달리며 뛰어 놀았던 고향마을의 전경을 그려보고 싶어 하나 하나 기억을 되살려 보지만 11살 때 떠난 고향의 모습은 자꾸만 사라져가고 있다.

지금 고향에 친척들은 아직 살고 있는지, 할아버지 추석 성묘는 누가 찾아갔는지...

경의선에 철마가 달릴 때는 반드시 내 고향 평남안주를 거쳐야 신의주를 갈 수가 있다.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꿈과 희망을 갖고 기다리고 싶다.



### 다시, 꽃 지던 날

-미성이와 효순이 49재에서

임상선 (사범대 국교4)

파아란 하늘은 온통 잿빛으로 뒤덮였고  
잠초같은 함성은 여름이 다가도록  
핏빛 유월을 잊지 못한 채  
멈춰 선 도시 곳곳에는 말없는 케러펄더 소리만이 남아  
너희가 떠난 길가에 흙빛 들꽃만 무성하다

쓰러진 흥들의 살점처럼 뜯겨진 거리 곳곳에는  
그날의 비명만 메아리칠 뿐  
뿔뿔히 너의 머리칼에 묻은 선혈은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붉게 얼어붙어 있고  
푸르기만한 풀잎들은 그날을 기억하는 듯 말없이 서있다

찢겨진 방도의 하늘 아래 고사리손 잡은 저 소녀들과  
시련의 세월 속에서 내 조국 어느 곳에서  
우리 평안히 레일 철 곳을 찾아 사그라진 그 이들의 영혼들  
이제 멈출 수 없는 불꽃으로 다시 피어오를  
그래서 우리가 흘렸던 눈물 속에 아련히 비춰지는  
유리창한 누이의 겁탈당한 조국의 모습이 살아 숨선다

조롱하듯 내려다보는 저 탐욕의 깃발 아래서

### 지갑 속 내용물이라도 찾아 주어야

학교 건물을 오르내리다 보면 지갑을 찾는다는 내용의 자보를 종종 보게 된다.

돈은 가져도 좋으니 안에 있는 신분증이나 카드와 같은 중요한 것들만 돌려주어도 후사하겠다는 내용에서 잃어버린 사람의 초조한 심정을 엿볼 수 있다.

한번도 지갑을 잃어버린 적이 없는 사람이야 그 심정을 모르겠지만 세 번이나 지갑을 분실한 적이 있는 나로서는 이해가 되고도 남는다.

그런데, 자보를 붙인다는 것은 잃어버린 후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찾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고, 그것을 학교 안에 붙인다는 것은 분실한 장소가 학교 안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지갑을 주운 사람 역시 같은 학교에 다니는 사람일 것이고,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았음은 물론이리라.

누구나 그렇듯이 나 또한 이를 경험해 봐서 아는데, 지갑을 주우면 기본이 참모하다. 지갑 안의 내용물에는 관심이 없으나, 견물생심(見物生心)이라고 했던가. 돈을 먼저 욕심이 갔던 게 솔직한 고백이다.

당시에 주위에서는 모두들 돈을 가지고 지갑은 우체통에 넣으면 알아서 주인이 찾아 갈 것이라고 유혹했었다. 하지만 망설임 끝에 결국 나는 지갑 안에 있는 학생증을 보고 소속과를 찾아 게시판에다 지

갑 찾아가라는 메모와 함께 내 전화번호를 남겨두어 지갑을 돌려주었다.

내가 이러한 나의 경험을 언급하는 것은 단지 주운 지갑을 주인에게 돌려준 올바른 행동을 자랑하려는 게 아니다. 지갑 안에 있던 현금이 큰 금액이었다면 나도 달리 마음을 먹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하지만 지갑주인도 현금이야 어쨌든 안에 있던 내용물만 찾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이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지갑을 되찾았을 때의 그 기뻐던 기억을 떠올려 주인에게 돌려주어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이었다.

우리는 학교 내에서 지갑을 찾는다는 자보를 험사리 찾아 볼 수 있다.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끼리 주운 지갑을 주인에게 되돌려 주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정 돈이 탐나면 돈은 다 가져간다 하더라도 지갑주인은 의심하거나 기분 나빠하지는 않을 것이다. 돈 보다는 지갑 속의 내용물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신분증 위조를 한다거나 카드를 사용하려는 등의 악의가 없다면, 주운 사람에게는 쓸모가 없는, 하지만 잃어버린 사람에게 절실한 지갑 속의 내용물들을 주인 손으로 돌아가게끔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임철우 (아간강좌 정보산원4)

### 공부하고 싶은 도서관 만들기

도서관 이용에 있어서 문제점이 적으면 적을수록 학교의 질이 높아진다는 그런 풍설이 있다. 왜냐하면 도서관은 그 학교의 이미지를 드러내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먼저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는 학생들의 의식이 먼저 변화되어야 하겠지만, 도서관측에서 좀 더 신경을 기울였으면 한다.

이를 위해 적어도 도서관 내에서 학생들이 다니는 통로만이라도 카페트를 깔아 주었으면 한다. 도서관 내 바닥과 구두 마찰음은 너무도 크다.

이로 인한 소음 또한 만만치 않다. 다른 학생들에게 구두 마찰음으로 인해 방해받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카페트를 깔

아 주었으면 한다. 한 예로 경북대는 카페트가 잘 깔려진 걸로 알고 있다. 타대학과 비교해서가 아니라 도서관의 조용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이라 본다.

또한 현재 도서관은 한·의학관 열람실과 일반 열람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좀 더 구체적인 학문을 위해서라면 사범고시 열람실, 경찰간부 후보생 열람실, 일반 공무원 열람실 등 세분화된 열람실이 필요하다고 본다.

자신이 공부하고자 하는 열람실에 들어가 타인과 함께 공부하며 경쟁한다면, 미래 세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박상철 (법정대 행정3)

### 작은 배려가 필요할 때

"아들이 있습니다. 몸이 좀 아파서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해서 어려운 형편에 작은 차 하나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주차비가 너무 비쌌는데 아들이 1급 장애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학내에 주차하는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경이라는 곳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머나먼 곳에서 걸려온 어느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였다. 죄송함과 답답함에 학생회관 입구에 서있자니 주차된 차들이 더욱 가슴을 막히게 했다. 저 공간 중에 그 학생의 작은 차 하나 댈 곳이 없나 싶어 마음은 착잡하기만 했다.

문경에서 걸려온 그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난 후 견제된 동양로는 주차문제도 그렇지만 '저 차 대신 그 학우의 차가 들어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가슴에 남더라

는 것이다. 학교가 무척 좁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그 작은 공간을 알 굴 모르는 후배이고 동기일지도 모르는 혹은 일상에서 스쳐 지났을 제자일지도 모르는 그에게 자리를 선불한다면 참으로 감동적일 수도 있겠다.

말 그대로 선물이었으면 더욱 좋을 것이다. 학교 행정상 당연히 부여되는 딱딱한 감정 말고 막연하지만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발로. 하지만 내심 등급을 따지지 않고 행정상 저 차 혜택이 없으면 하는 바람이 없지는 않다.

그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직도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빙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취서 흐뭇하고 받아서 기쁜 것, 그것은 선물 밖에 없을지도 모르겠다.

강인욱 (아간강좌 영문4)

### 국회 방문기

### 객관적 지식에 대한 맹신 반성

국회를 방문한다는 것. 더군다나 국회의사당 안으로 들어가서 국회가 열리는 장면을 본다는 것은 정말 뜻밖의 행운이었다. 실제로 국회에 가서 직접 국회가 열리는 장면을 눈으로 보게된 것이다.

생각했던 것보다 그리 크지 않은 회의실(?)에서 국회의원들이 당별로 앉아서 회의를 하는 장면은 매일 싸움질만 하는 국회의 모습을 상상하던 것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게 해주었다.

비록 당론의 차이로 인해 정상적인 회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한참을 기다리던 우리는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었지만 운 좋게도 국회에서 나오는 길에 우리를 초청해준 민주당 최고위원 중 한 사람인 추미애 의원과 연락이 닿아 한 40여 분동안 대화를 나눌 시간이 있었다.

정치외교학과 학생회장이 모의국회에 관련된 질문을 몇가지 했고 난 한층런, 범민련 이적규정에 대한 의원의 생각을 물어 보았다.

추미애 의원은 대선 직전이고 또 신문

사 기자들이 있다는 점과 우리가 정의와 학생이라는 점을 생각했는지 말을 많이 아끼고 지극히 당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국회의원이 생각하는 바와 우리가 생각하는 바가 일치하는 부분이 생겼을 때는 정말 반가운 마음이 들었고 항상 하는 일도 없이 국민을 운운하던 국회의원들을 싫어하던 나에게 조금은 다른 인상을 심어주는 계기도 되었다.

또한 뉴스와 신문으로만 접했던 현 정세와 대선 후보들의 정책 기조와 같은 부분을 이야기 할 때는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어 새삼 놀라고 언론으로 접하는 객관적 지식이라 하는 것들을 맹신해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도 했다.

이번에 국회를 다녀온 경험은 나에게 자그마한 충격(?)으로 다가왔고 앞으로 내가 어떠한 정치적 지식을 접함에 있어서 좀 더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동기가 되어 줄 것 같다.

김홍규 (사과대 정외2)



### ■ 지난호 동대신문을 읽고 ■

### 시간강사 문제제기 적절 병역거부 심층성 아쉬워

지난호 동대신문 기사 중 가장 눈길은 끈 기사는 대학과 사회와 관련된 내용으로 최근 들어서나 전부터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되는 부분에 대한 보도이다.

현실적으로 대학교육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시간강사'들에 대한 내용을 다룬 기사는 '시간강사'들의 문제가 비단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학의 교육의 질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라는 것을 시사하고 이에 대한 대안책을 제시한 것은 의미 있는

시도로 보여진다.

또한 종교적 신념으로 인한 병역거부를 선연했던 오대양지 이후에 점차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었고 더불어서 우리 학교 '나의 주장'란에서도 뜨거운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기사와 사실은 우리들이 이 문제를 어떤 눈으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심어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를 둘러싼 문제의 출발과 진행 등을 다룬 보다 심층적인 보도가 생각되어 문제의 본질에 대한 올바른 접근을 하기 어렵게 한 것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송희문 (사과대 사회4)

### 수강신청제 변경에 대한 학생 의견도 다뤄야

경주캠 동대신문을 읽으면서 학기초마다 생각해 왔던 것이 있었다. 그건 다름 아닌 수강신청기간에 대한 것이다. 대학 생활을 해오면서 수강 신청에 대한 불만은 항상 불어져 나왔었다. 이 기간은 학교측에서 학생들의 편의를 생각해 추가 일정 기간을 만들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는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것을 누구나 한번씩 느꼈을 것이다. 물론 수강 일정 기간을 통해 학생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취지는 좋지만 일부 학생들은 수업을 들어

가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인식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동대신문을 통해 알게된 내년부터의 수강신청기간 소멸은 실질적으로 방학기간을 마치고 학생들이 단기간에 정상적인 학교생활에 적응 할 수 있고 학생이 학사 일정에 관심을 두고 준비를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런데 이번 기사의 내용 중 한가지 아쉬운 것은 학생들의 의견이 빠져 있다는 것이다. 수강신청제의 변경에 대해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더 들어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인태용 (아간강좌 경영4)

탈 수습기

# 열정 펼치는 정기자로 거듭날 것



'사노라면 언젠가는 밝은 날도 오겠지, 흐린 날도 날이 새면 해가 뜨지 않더냐'

어느 토요일 새벽, 기사를 마감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디선가 들려온 노랫소리다. 일주일 동안 취재와 기사쓰기, 잡무 등으로 인해 내 몸과 마음은 '흐려' 있었다. 하지만 '흐린 날도 해가 뜬다', 이 노랫말은 지친 나를 말끔히 위로해 주었다.

대학에 들어온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난 무리한 대학생활에 싫증나 있었고 마침 '동대신문사 수습기자 모집'이라는 광고가 눈에 들어왔다. 새로운 경험에 대한 기대감에 부푼 마음으로 신문사생활을 시작했다.

하지만 신문사는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벽한 상대였다. 일주일 중 대부분의 시간을 신문사에서 보내야만 했고, 매사에 소극적이던 내게 언제나 적극적으로 활동하길 요구했다. 또한 취재와 기사에 대한 압박감으로 숨이 막힐 것만 같았다.

이런 이유로 나는 점점 지쳐갔고, 신문사 때문에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 내 자신에 대해 회의를 느꼈다. 그리고 평소 조금씩 들기 시작했던 '그 만두자'라는 생각은 더욱 절실하게 다가왔다.

그러던 중 생각을 한 번 긍정적으로 바꿔보라는 어느 선배의 말은 답답했던 신문사생활 속에서 돌파구를 마련해 주었다. 신문이 나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신문을 만든다고 생각하니 비로소 신문사가 선사한 수많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여러 행사, 사건들을 직접 취재한 솔한 경험들은 기성언론에 의해 획일화된 내 의식의 틀을 깨는 바탕이 되었고, 신문사 사람들을 통해 끈끈한 '정'을 느낄 수 있었다. 힘들 때면 언제나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동기들과 선배들은 압박감에 짓눌려 있던 내게 커다란 빛이 되어 주었다.

이제 6개월 간의 수습생활을 마치고 정기자가 됐다. 그리고 흐린 날에도 해는 언제나 뜨고 있었지만 수많은 먹구름에 가려 잊혀졌을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돌이켜보면 그동안 소극적이고 수동적이었던 태도가 신문사생활의 빛을 반사한 것 같다. 정기자로 새롭게 거듭나는 지금, 보다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독자에게 한발 더 다가갈 것들 다짐해 본다.

최성민 기자

qwertewq@dongguk.edu

# 날아라 폭탄잔해, 평화의 시대로

## 매향리 포탄껍질전 ... 전쟁과 폭력에 대한 근본적 인식 바꾸고자

길거리에 나뭇잎이나 쓰레기통에 버려진 물건을 골라 Kg당 얼마에 파는 고물장수. 그들에게 고철은 더 이상 쓰레기가 아니라, 금 덩어리다. 그리고 독특한 아이디어로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예술적 영감을 떠오르게 하는 하나의 모티브가 되기도 한다.

지난 25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열리는 민중작가 임옥상(52) 씨의 열 세 번째 개인전 '철기시대 이후를 생각한다'가 눈길을 끄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인사동 인사아트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이 전시는 철기시대를 폭력이 난무하기 시작한 시기로 간주하고, 이후 무절제한 전쟁 속에 이루어진 살생과 파괴에 대해 이야기한다. 주목할 것은 작품에 쓰인 대부분의 고철들이 바로 경기도 화성의 매향리 미 공군 사격장에서 주어진 포탄껍질이라는 점이다.

"매향리에서 두 가지 충격을 받았어요. 첫째는 귀가 찢어질 듯한 굉음이고, 다른 하나는 피해자인 주민들이 그 폭탄이나 탄피를 이용해 종이 나 역기 등의 생활용품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이에 작가는 매향리 사람들의 고통은 물론, 폭탄을 이용한 그들 나름대로의 슬기와 재치를 포착한 것이다. 폭탄전문가와 함께 위험을 무릅쓰고 갯벌 속에서 녹슨 탄피와 폭탄 잔해들을 주워 모아 작업에 돌입했다. 이번 작품에 쓰인 고철의 무게만 무려 270Kg.

대부분의 전시작품은 포탄 잔해를 이용해 만든 가구들과 시시때때로 전쟁발발할 노리고 있는 미국을 비판하는 조형물,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구성된다.

먼저 조명탄을 개조해 프로펠러까지 그대로 살린 조명기구나 총알로 조립한 회의용 탁자, 포탄으로 만든 보조자 등은 폭탄이 가졌던 이전의 흉악한 물골 대신 인체공학을 고려해 설계한 아이디어 넘치는 가구류의 탈바꿈이 신선하게 다가온다.

또한 'The Great American Phallus(거대한 미국의 음경)'라는 다섯 편의 연작은 충격적일 정도로

직접적인 표현이 돋보인다. 폭탄에 짓눌려 그것을 떠받치고 살아가야 하는 매향리 주민들의 고통을 형상화하고 더불어 남성의 성기를 불발탄으로 표현해 남성이 지배하는 폭력의 시대를 풍자하고 있다.

특히 이 전시는 폭력을 비판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와 생명이라는 철의 상충된 이미지를 이용해 평화와 안정의 시대를 기원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가령, 포탄껍질로 만든 사람의 형상물은 손가락으로 표현한 날개를 달아 당장이라도 어디론가 날아갈 듯 하다. 여기서 손가락이란 우리의 생명을 지속시키는 일상의 도구로, 철에게도 생명이 있다면 평화롭고 안정된 세상의 도래를 원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 것이다.



### 탄피와 폭탄 이용해 생활용품 만드는 주민들 삶에서 힌트 얻어



이와 관련해 지난 26일 '작가와 대화'에 참석한 화가이자 방송인인 한재미 씨는 '깊이있는 주제를 토크하는 아이디어로 표현해 쉽지만 뚜렷하게 느낄 수 있었다'며 감상평을 전하기도 했다.

매향리가 가득한 동네, 매향리. 누군가는 한물간 이야기로 치부할 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반도의 전쟁은 끝없는 분쟁과 폭력의 시대를 낳았다. 때문에 매향리는 단순히 그곳만의 문제로, 잊혀져 가는 곳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 지난 5월 열린 '매향리 음악회'나 이번 전시회처럼 앞으로도 매향리 문제를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이들에게 알려주는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야 할 것이다.

이성희 기자  
mong2@dongguk.edu



위에서부터 '철의 꿈 IV', '회의용 탁자' 그리고 'The Great American Phallus'.

### 클릭! CFBEST(www.cfbest.com)



길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인터넷방송' 코너에는 광고 중에서도 수작들을 제작한 김규환, 김한수, 박명천 감독 등 유명 CF감독과의 만남을 담은 'CF 데이트' 등의 방송이 마련되어 있어 흥미롭다.

또한 누구나 자유롭게 광고소개와 비평을 올릴 수 있는 '광고칼럼'과 광고요청, 광고에 대한 질의 등을 할 수 있는 '차량참고' 등의 코너로 회원들의 참여가 활발하다. 이밖에도 광고에 대한 질문들을 던지고 설문조사 형식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알아보는 '리서치'는 재미있는 질문에서 아이디어가 돋보인다.

하지만 '옛날광고' '해외광고' 등의 코너는 이름만 있을 뿐 제 기능을 하지 못해 국내광고만을 감상할 수밖에 없는 한계점이 있기도 하다. 이에 하루빨리 이러한 컨텐츠를 보완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눈길을 사로잡는 비주얼로 짧은 시간 내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는 영상의 미학, TV광고, 광고를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CFBEST에 둘러보는 것은 어떨까.

이수경 기자

papaya@dongguk.edu

똑딱똑딱 ... 초침소리와 함께 긴장이 흐른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소비자의 시선을 한 눈에 사로잡는 매력. 바로 '30초 예술'이라고도 하는 광고의 마술이다. 이런 광고의 특색 뒤는 감각을 맛보고 싶다면 이 곳에 가보자. 온라인 상의 광고커뮤니티 'CFBEST(www.cfbest.com)'에 가면 신선하고 재기발랄한 TV광고들과 알찬 자료들이 가득하다.

각종 광고들을 모아놓은 '국내광고' 코너는 국내에서 방영중인 4천 700여 개의 다양한 TV광고들과 CFBEST가 선정한 이달의 좋은광고, 우수광고 동영상상을 제정하며, 광고에 대한 소감도 남

## 문화단신

### 2002 멕시코만화전

서울시와 주한멕시코대사관이 공동주최하는 '2002 멕시코만화전-시대를 안고 간다' 전시회가 지난 2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남산 서울에니메이션센터에서 열린다.

올해로 두 돌을 맞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멕시코 만화상을 수상한 다비드 카리요를 비롯한 30명의 멕시코 만화가협회 소속 작가들이 참가한다. 또한 멕시코 만화가협회장 호세아르네스스가 멕시코 만화의 역사와 특징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문의 3455-8363

### 독립영화제 작품공모

국내 유일의 경쟁독립영화제인 '서울독립영화제 2002'에서 경쟁부문에 참가할 작품을 모집한다. 12월 20일부터 28일까지 아트시네마와 미르스페이스에서 열리는 이 영화제의 주제는 '충돌'. 지원분야는 △단편부문(25분 이하) △장편부문(60분 이하) △장편부문(60분 이상) 등이다. 접수기간은 내일(1일)부터 18일까지이며, 지난해 10월이후 제작된 작품이라면 매체나 장르에 상관없이 참가 가능하다. 문의 362-9513

### 버드록 콘서트

'오 필름 록 코리아'라는 타이틀을 내건 록 페스티벌 '버드록 콘서트'가 오는 5일 오후 3시부터 여의도 공원광장 야외무대에서 펼쳐진다. 언더그라운드 록 밴드들을 중심으로 꾸러지는 이 무대는 선착순 무료입장으로, 히딩크 현정음반 'Thank U Hiddink'의 수록곡이 공개되며 '우리의 소원'을 록음악으로 재편곡해 새롭게 선보이기도 한다. 이번 콘서트의 수익금 중 일부는 록음악 발전기금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문의 2166-2644

## 직업흥미검사 실시

새로운 기대와 의욕을 가지고 시작한 학기초입니다. 처음은 항상 설레고 아름다운 것이지요. 지금 여러분은 처음에 품은 뜻을 이루기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성공적인 대학생활과 그 대학생활을 바탕으로 자신의 직업과 진로를 청하는데 직업흥미검사를 통하여 여러분을 여러분의 미래에 초대합니다.

### 1. 실 시

- ▶ 제1회 : 10. 1(화) 오후 2~3시
- ▶ 제2회 : 10. 10(목) 오후 2~3시
- ▶ 제3회 : 11. 5(화) 오후 2~3시
- ▶ 제4회 : 11. 14(목) 오후 2~3시

### 2. 접수 및 검사비

- ▶ 접 수 : 학생상담센터
- ▶ 검사비 : 무료

### 3. 문 의

학생상담센터 (본관 2층, 구내전화 3930~2)

학 생 상 담 센 터

## 불기2546년! 건학 이념 구현을 위한 알기 쉬운 불교 따라잡기 행사 개최

어느덧 조석으로 바람이 쌀쌀한 가을입니다. 가을은 설렘과 쓸쓸함이 공존하는 계절이요, 또한 사색과 명상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바쁘게 살아 온 한 해를 더욱 보람 있게 정리하고 여유와 나눔의 마음으로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고자 학생들을 위하여, 9월과 10월에 걸쳐 약 4주 동안 아래와 같이 '이해와 접근이 쉬운 불교 관련 대중 행사'를 개최하여 생활 속의 불교 체험 및 정서 함양의 기회를 마련하였사오니, 많은 학생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행 사 명	행사일시 및 대상	장 소	접수기간	접수 및 문의처	비 고
묵타배우기 강좌	1차 : 9.26(목) 18:30~ 2차 : 10.10(목) 18:30~ 3차 : 10.17(목) 18:30~ O 대상 : 본교 재학생	정각원 법당	9. 9(월)~ 10. 25(수)	학생회관 2층 불교학생회 (2260-8759/017-304-3771) * 홈페이지 접수 가능 (http://www.dongbul.net)	참가하시는 모든 분께 '묵타 배우기 자료집' 무료 배포
제18회 추계 명찰순례	10. 11(금)~10. 12(토) (1박2일) O 대상 : 모든 동국인 (선착순 45명)	충북 단양군 '천장선원'	9. 30(월)~ 10. 10(목)	본관 3층 학생복지실 (2260-3048)	참가비 5,000원
명사초청특강	10월말 또는 11월초 (미정)	본관 중강당	-	-	현각 스님 강연 예정 (萬年·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 쫓겨)
산사체험 '미음보기·느끼기·나누기' 동계 수련대회	12. 11(수)~12. 14(토) (3박4일) O 대상 : 본교 재학생 (선착순 45명)	충북 괴산 '다보수련원'	9. 9(월)~ 동계방학일 전까지	학생회관 2층 불교학생회 (2260-8759/017-304-3771) * 홈페이지 접수 가능 (http://www.dongbul.net)	참가비 25,000원 (02학년 신입생은 10,000원)

주 최 : 학생처 · 불교학생회  
후 원 : 정각원 · 석림회

## 실전모의면접 개최

취업예정자들의 취업활성화와 준비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02년도 실전 모의 면접을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석바랍니다.

1. 일 시 : 2002. 10. 4(금) 15:00~17:00
2. 장 소 : 중강당(본관)
3. 면 접 관

성 명	근 무 처	직 위	비 고
최형준	(주)삼성생명	인사차장	
이응걸	롯데그룹(롯데제과)	인사부장	
이한영	SK그룹	인사부장	
남경현	(주)엘리트코리아	부 사 장	

- 실전모의 면접을 통하여 면접능력의 배가
- 서류전형시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의 채점기준 및 작성법
- 4. 면접형태 : 개별면접, 집단면접, 프리젠테이션, 집단토의면접 후 단계별 강령 실시
- 5. 주 최 : 학생처 취업지원팀 (☎2260-3054~5)

학 생 처

## 교양수학 개인교습실 (Tutoring session) 운영

이과대학 수학과에서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교양수학 교과목인 일반수학, 수학기초론, 응용수학 등에 대하여 개인교습실(Tutoring session)을 9월2일부터 12월6일까지 운영하오니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 바랍니다.

- ▶ 장 소 : 명진관 세미나실(A402)
- ▶ 일 시 : 월 16:00 ~17:30, 목 11:30 ~13:00, 금 11:30 ~13:00

이 과 대 학

매체비평

연극 편

가족에 대한 세 가지 사랑

“가족 통념 비틀고 배반, 작품·대중성 간 긴장 유지해”



국립극단의 3부작 연극 '가족에 대한 세 가지 사랑'.

8월 말부터 한달 간 국립극단에서는 '가족에 대한 세 가지 사랑'이라는 주제로 세 작품을 연달아 올렸다. '가족'이라는 주제나 '세 가지 사랑'이라는 아련한 느낌의 표현이나, 처음 이 기획을 접했을 때 대중에 대한 국립극단의 구애가 절절히 느껴졌다.

물론 '국립' 극단인 만큼 좀더 많은 대중들과 함께 하겠다는 구애의 몸짓이 타할 일은 아니지만 그 몸짓에서 일말 위태로움을 느꼈던 것은 상업성과 구분되는 대중성이야말로 이 대중문화의 시대에 흔히 '본격' 예술이라 지칭되는 작업들의 쉽게 풀리지 않는 고민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국립' 극단의 작품이니 그 구분은 더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

첫 무대로 올랐던 '길 위의 가족'(장성

희 작/김영환 연출)은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3대가 함께 캠핑을 나온 한 가족의 이야기이다.

그런데 연극이 진행되면서 이들의 캠핑이 화목한 가족행사가 아니라 해체 직전의 안간힘이라는 것이 밝혀진다. 경제적 곤궁 앞에서 가족은 모두 각자 자살을 시도한다. 가족은 고통을 다 녹여내는 마지막 보금자리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버티던 집 수 없는 집이 되어 있다.

'집'(박근형 작/연출)은 '길 위의 가족'과 달리 마지막 보금자리로써의 가족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지만 그 보금자리는 혈연이라는 운명적 결합에 대한 순응이 아니다. 아들의 결혼을 앞두고 벌이는 사돈 대과의 환관 실랑이는 가족을 가져보지 못한 이웃집 아저씨의 기저 가득한 연극

으로 해결된다. 이제 해산달을 앞둔 며느리와 골치덩어리 사위와 딸 그리고 아버지 자리를 잠시 내주었던 아버지 그리고 연극을 꾸민던 이웃집 아저씨 모두가 좁은 방에서 환하게 웃으며 막이 내린다.

'어머니가 가르쳐준 노래'(최인호 작/최용훈 연출)는 한편의 사모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작품의 어머니는 깊게 개인 주름에 인생의 모든 고통과 회한을 간직한 그런 어머니가 아니다. 불날 흘날리는 꽃잎처럼 화사한 어머니의 모습은 일방적인 모성만을 기억하는 기존의 사모곡을 넘어선다.

하지만 그 넘어서 지점이 한 남성의 성장기에서 부딪히는 안식이자 도발이며 구원이기도 한 여성의 모든 이미지들을 어머니에 투영하는 것이라는 점은, 남성 작

가의 자의식이 사모곡보다 앞선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

각각의 작품들은 우려와 달리 '가족'에 대한 일반적 통념을 비틀고 배반하고 있다. 안이한 결론에 안주하지 않고 현실의 고통을 마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작품성과 대중성 사이의 긴장이 느껴지는 기획이었다.

물론 이러한 성과는 장성희, 박근형, 최용훈 등 현재 연극계에서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젊은 그룹을 끌어들이므로써 가능한 것이기도 하다. 국립극장이 작품성과 대중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고자 하는 이번 기획에서 효과적인 전략이었다고 생각한다.

김소연 연극평론가

# 세상 향해 돌진하는 상상력의 힘!

## 경험의 끝간 곳에 상상력이 샘솟는다

미국 대통령인 빌 클린턴이 달리기 '구루'이자 '철학자 왕'이라고 일컬은 조지 쉬언이란 사람이 있다. 의사였던 이 사람은 45세가 되던 해부터 달리기를 시작해 달리기에만 할 여려 권의 책을 쓴 바 있다.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잊혀지지 않는 말이 있다. 바로 몸의 형태가 정신을 규정한다는 말이다. '건강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라는 말도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훨씬 더 철학적인 얘기다. 건

강해야 건전한 정신을 지닐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몸 자체가 생각한다는 말에 가깝다. 내가 이 사람의 말에 동조하는 것은 달리기 해왔기 때문이 아니다. 내가 한참 시를 배울 때도 그와 비슷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내가 금이야 옥이야 아끼는 책 중에 미국 시인 테드 휴즈가 쓴 '시작법'이란 책이 있다. 학교 다닐 때, 대학에 있던 동양서림 한 귀퉁이에서 이 책을 찾아내고는 한동안 열심히 읽었다. 이 책을 읽고 그야말로 눈이 번쩍 뜨이는 경험을 했는데, 예컨대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보고 듣든 그렇지 않든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귀를 기울이거나 진정으로 바라보지 않고 다만 모든 것을 우리로부터 흘러보내 버리는 게 온순 습관을 발전시킨 결과를 갖게 된 것이다.”

이 책에서 테드 휴즈는 끊임없이 환상이 아니라 경험에 대해 얘기한다. 시는 공상과 몽상으로 씌여지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씌여진다는 말이다. 습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처

음 보는 것인 양 생생하게 볼 때, 그저 흘러듯 듣는 게 아니라 귀를 기울여 들을 때, 시가 생겨난다는 뜻이다.

시는 어디에나 존재한다. 하지만 자신의 온몸을 모두 던져 우리 외부의 시적인 것을 감지해야만 그 시는 언어로 바뀔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몸이 생각한다는 말이 틀리지 않는 셈이다.

나는 상상이란 이처럼 몸이 생각을 다한 곳에서 일어나는 뭔가라고 생각한다. 뭔가를 상상한다는 것은 자기가 몸으로 알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을 본다는 얘기다. 이걸 다시 말해서 자기가 어디까지 아는 시 몸으로 겪어본 뒤에야 상상할 수 있다는 얘기다. 자기가 경험할 수 있는 그 끝까지 가면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막막한 벽이 나온다. 상상력이 필요한 시점은 바로 거기다. 앞에 나아갈 길이 많다면 굳이 상상할 필요가 없다. 그냥 앞으로 나아가면 된다.

폴립버스와 향했던 뱃길을 따라 신대륙에 가는 길이 힘들기는 하겠지만 벽은 아니다. 라이트 형제가 만든 비행기를 타는 게 겁이 나긴 하겠지만 막막하지만은 않다. 누군

가 한번은 했으니까. 하지만 거기서 조금만 더 나아가면 다른 차원의 벽이 보인다. 온 몸을 던져서 정신 번쩍 차리고 남들이 갔던 가시밭길을 몸으로 다 때우고 나서도 넘지 못하는 그 벽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상상력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몸이 생각을 그친 곳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비로소 상상한다.

인류는 상상력을 통해서 세계를 바꿔왔다고 하지만, 세계 자체가 변한 것은 없다. 원래 지구가 태양을 돌았으며 석유는 땅속에 묻혀 있었으며 신대륙은 대서양 저편에 있었다. 변한 것은 세계를 감지하는 우리 몸의 체계다. 그러므로 다들 먼저 온 몸으로 경험하기를. 온 몸으로 수없이 부딪히고 실패하고 좌절하기를. 더 이상 갈 수 없는 데까지 가보기. 그곳에 이르렀을 때, 그 때 다시 한 번 상상력에 대해 말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아마 거기까지 갈 수 있다면 왜 상상력으로 인류의 역사를 바꾼 사람들의 전기가 실패담으로 가득한 것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김연수 소설가



# 당신의 돈키호테 지수는 얼마입니까?

## 문화·사회·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상상력 ... 사회변화 주도하는 원동력으로

여기 비쩍 말라빠진 말 위에 올라타 고함을 지르며 풍차를 향해 돌진하는 한 늙은 남자가 있다. 그의 이름은 라만차의 돈키호테. 변변히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과 온갖 시련에도 포기하지 않고 세상의 정의를 수호하는 마지막 기사다. 다른 이의 눈에는 풍차로 보이는 그것이 그에게는 무시무시한 거인의 무리인 모양이다.

세르반테스가 창조한 소설 속의 인물 '돈키호테'는 어느새 우리

주변에서 엉뚱하고 특이한 사람을 이르는 말로 자리잡았다. 남들과는 조금 다른 생각, 그러면서도 무모할 만큼의 추진력, 이 수식어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을 떠오르게 한다. 고정되어 있는 틀을 거부하고 항상 새로운 것을 꿈꾸는 이들, 바로 공상가, 혹은 발명가라고도 불리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문화, 사회, 과학 등 생활영역 전반에 걸쳐 창의성을 억압하는 세상에 상상력으로 맞선다. 그렇다면 이 활약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을까.

대중문화에 나타나는 상상력의 작용은 무궁무진하다. 문화의 커다란 축을 이루는 문화적 상상력은 영화와 만나고, 이는 다시 판에 박힌 듯 똑같은 영화를 생산하는 주류의 흐름에 파문을 일으키는 신선한 충격이 된다.

이처럼 문학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는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지만 그 중에서도 단연 상상력이 돋보이는 것은 먼저 가본 미래의 기록, SF라고 할 수 있다.

얼마 전 국내에서 상영된 '미아너티 리포트'의 원작은 작가 필립 K. 딕이 쓴 동명의 소설이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디스토피아적 묵시록으로 유명한 조지 오웰

의 '1984년' 또한 '브라질'이라는 영화로 만들어졌다. 뿐만 아니라 국내작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 역시 김경주 감독의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라는 시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영화이다.

이들 영화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면 '시스템'이 가지는 권력과 인간의 갈등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영화는 창조적인 상상력을 발휘하여 인간이 권력에 맞서는 과정을 기상천외하게 그려낸다.

상상력과는 거리가 멀 것 같은 사회, 정치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모든 권력을 상상력에' 사회체제의 전복을 주장했던 프랑스 68혁명 당시 학생운동이 내걸었던 구호 중 하나이다. 이 문구는 당시의 사회운동과 이론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사실과, 상상력을 통해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새로운 운동과 이론을 창출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모든 제도를 뛰어넘는 상상력만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비단 1968년의 프랑스에서만 통용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오늘날 경직된 사고방식으로 고착화된 우리사회 또한 틀을 깨는 상상력으로 변혁을 추구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이외에도 부가가치와 직결되며 우리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온 과학적 상상력이 발휘되는 방식은 실로 다양하다. 이 순간에도 수많은 발명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우리 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생활과 가까운 예를 몇 가지 들여보자면 휴대전화기를 통한 화상통화가 보편화될 시대가 멀지 않았고, 우리 몸의 장기도 하나둘씩 인공으로 교체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처럼 커다란 변화와 정교한 기술을 요구하는 것 외에도 '폴립버스 대발견'과 같은 TV프로그램에서는 사소한 일상 속에서 재치가 번득이는 기발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자유롭게 펼쳐지고 있다.

어떤 기술도 증명하기 전에는 상상의 단계를 거친다. 과학이 세상을 바꿀 수 있었던 배경에도 또한 모든 가능성을 향해 문을 열어두는 상상력이 뒷받침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실 돈키호테가 달려든 풍차는 거인이었을 지도 모른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버린 일상의 수많은 제도 속에서 '세상'이라는 이름의 풍차가 거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

풍차는 맞설 수 없는 성질의 것 혹은 대결할 수 없는 세상이지만, 거인이라고 '상상'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상상력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 도전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도 세상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해 가는 것은, 미치광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백일몽만 꾸는 소리를 듣더라도 이처럼 상상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수경 기자 papaya@dongguk.edu



## 메아리

### 게임의 법칙

▲학교운동장에 큰 사각형을 그리고 동글납작한 돌을 준비한다. 사각형 귀퉁이에 손바닥만한 자기집을 만들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 돌을 옮기면 돌이 지나간 안쪽은 모두 자기 땅이 되는 것이다. 단, 옮긴 돌이 3번 이내에 자기집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무효 처리된다. 이것은 전통놀이 '땅따먹기'의 진행방식이다. 비록 '가짜땅'을 두고 하는 어린이들의 놀이지만 분명 엄격한 게임규칙이 존재하고 있다.

▲지난달 중순, 국제수리기구(IHO)가 '해양의 경계' 4차 개정판에서 일본해(SEA OF JAPAN) 표기를 삭제하겠다고 발표했다. IHO 해양의 경계란, 각 바다의 명칭을 결정할 때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되는 국제 표준 해도를 뜻한다. 일본의 제국주의가 가시화되기 시작한 1929년 결정된 일본해 단독 표기원칙. 그로 인해 그동안 동해는 대부분의 세계지도에서 일본해로 불리게 되었다. 이에 우리측이 오래

전부터 강력하게 항의하자 IHO는 동해 지도를 아예 공란으로 남기고 회원국의 투표 표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한 것이다.

▲그런데 어쩌면 영문인지 개정판 발간을 앞두고 IHO가 돌연 일본해 단독표기 삭제를 철회하겠다고 한다. 우리측에는 일방적인 철회통고만을 보낸 채 말이다.

항간에는 동해 표기를 둘러싸고 팽팽하게 진행되던 한·일 양국의 외교전에서 일본의 집요한 로비가 영향을 끼친 것 아

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74년 IHO의 기술결의안과 77년 유엔지명 표준화 회의 결의안에서 논의됐던 '명칭이 통일되지 않을 경우, 두 개의 이름을 함께 쓰도록 했던' 권고사항마저 무시한 처사란 비난의 소리는 날로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어린이들이 '가짜땅'을 내걸고 하는 놀이에도 게임의 법칙은 존재한다. 글을 읽는대거나 순서를 어기는 것은 분명

물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또 사탕으로 남의 땅을 빼앗는 일도 있을 수 없다.

IHO는 세계지도도 결정짓는 중요한 국제기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기원칙의 기준이나 절차는 무시한 채 국제적인 결정을 그렇게 쉽게 번복하니, 이럴 때 쓰는 말이 바로 '나이값, 이름값도 못한다'가 아닐까.

이성희 문화부장 mon2@dongguk.edu

동아리 탐방 -경주캠 벤처 창업 동아리 '사이버 관광정보'

# 순수한 열정으로 창업의 길을 연다

## 경북지역 관광정보 담은 홈페이지 개설 ... '정'과 '앞'을 동시에



답사기행 현장에서 찍은 '사이버 관광정보' 회원들 모습.

경주캠 벤처 창업 동아리 '사이버 관광정보'는 벤처 정신을 발산하는 이들의 열정이 타오르는 모임이다. 신라 천년의 도시 경주의 숨은 명소와 명물을 전하고자 지난 98년 창설된 '사이버 관광정보'는 홈페이지(www.kyongbuktour.or.kr)를 개설해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정보를 제공받은 여행자들의 감사 메일을 받을 때마다 노력한 보람을 느낀다"는 이들은 매주 신라 문화 진흥원에서 주최하는 문화 답사기행에 참여해 여행자들에게 정확하고, 다양한 여행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비록 10명의 적은 회원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작은 고추가 맵다'라는 속담처럼 경상북도에서 지정한 13개 대학의 창업활동 실적평가에서 매년 A등급을 받고 있으며, 본교 홈페이지 경영대회에서 우승하는 등 수준급임을 자랑하고 있다. 또한 본교를 비롯한 금강생활관과 안전공과과 홈페이지 제작에 기여하기도 했다.

'모든 창업은 아이템이 생명이며 전문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들은 최근 관광과 여행에 도움이 되는 업체와 연계해 광고를 통한 수익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이버 관광정보 홈페이지에 등록된 업체만 현재 200여 개에 달하는 것을 보면 밝은 출발이 예고되는 듯 하다.

이제 창업 보육 센터로 자리를 옮겨 본격적인 사업에 첫발을 내딛게 된 이들은 소규모의 '기업'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런 수익사업에 대해 대학생의 순수한 도전의지가 퇴색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에 대해 박현진(관광경영3) 회장은 "도움이 되는 것은 가리지 않고 무조건 배울 수 있다는 점이 대학생의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배움을 통해 한 발짝 나갈 수 있고 이에 따른 수익은 쉬지 않고 다음 창업 활동에 투자해 본연의 순수성을 잃지 않을 거예요"라고 말했다.

활동의 특성상 회원 모두 매일 머리를 맞대고 창업이라는 최종 목표에 전념하다 보면, 저절로 싹트는 애정이 결속력을 더욱 다지게 한다는 회원들.

앞으로도 대학생의 순수한 열정과 독창적 발상으로 발전되는 '사이버 관광정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지)

jes@mail.dongguk.ac.kr



현재 '사이버 관광정보'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 취업정보

## 경쟁력, 실천이 문제다 - 취업위한 4가지 권고

보다 나은 직장을 찾기 위해서는 외국어, 정보, 전문자격증 등에 대한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그러한 경쟁력을 가진 사람이 흔치 않은 것은 실천하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이하에서는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실천하지 않는 몇 가지 사항들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무조건 외국어 시험을 보이라. 취업상담을 하면서 "토익점수 없으면 취직 못하나요?" "토익점수 없어도 취직할 선배 있던데요"라는 말을 적지 않게 한다. 사실상 토익점수 없이도 취직을 하여 직장생활을 편안히 잘하는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며, 직장 생활 중에 영어 한마디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토익점수가 없어도 취직할 수 있다는 것이 보편적인 상황은 아니며, 국내의 대다수 기업의 채용요건에 외국어점수가 포함되어 있는 현실에서 그러한 예외적인 상황을 기대하는 것보다 기업의 채용요건에 부합되도록 노력하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면 고득점비결은 무엇인가? 정답

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다. 그 외에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이 회수제한 없는 시험에 무제한 응시하는 것이다. 특히 토익시험의 경우 정기시험과 각종 모의시험 등을 본다면 매달 응시할 수 있다. '공부를 완벽하게 한 후 응시하겠다', '필요할 때 응시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시험을 보면서 하는 공부 가 더 유익할 것이다. 외국어 시험을 한번도 응시하지 않은 것이 잘못된 아닐지라도 결코 경쟁력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다.

또한, 응시료에 연연하면 결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도 기억해 두자.

둘째, 시간을 내서 '클릭'하라. 대부분의 학생들이 연예정보, 스포츠, 오락 등에 대한 정보검색에 투자하는 것에는 너털해도 취업정보검색에는 인색하다. 취업시즌에 이르러 해당기업의 홈페이지를 클릭하는 것으로 남보다 좋은 위치에 설 수는 없다.

기업에서 공개하는 급여, 복지후생, 매출 등의 문제뿐만 아니라 먼저 입사한 선배나 동종업계의 지인 등을 통해서 CEO의 목표의식, 기업의 분위기, 현

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방향, 전년도 기업평가, 향후전망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비교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비록, 요즘은 추천서에 의한 취업이 많이 감소되었지만, 취업지원팀 방문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 추천서가 아니어도 새로운 오프라인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자격증을 얻어라. 취업하고자 하는 직종과 관련된 자격증의 중요성은 굳이 언급할 것도 없이 얻을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자격증을 얻어야 한다. 자격증은 취업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자격증 취득에 따른 성취감이 많은 힘을 줄 것이다.

끝으로, 강한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비록 모든 것이 부족하여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는 것은 취업뿐 아니라 삶을 살아가면서도 큰 힘이 되어 줄 것이다. 특히, 면접시험 때 보여주는 자신감은 면접위원들의 낙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여러분들은 강한 자신감을 가져도 될 충분한 자격이 있다.

글 제공=취업지원팀

## 35mm 세상



마지막 생애수단마저 빼앗긴

한 노점상이 온몸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를 죽음으로 내몬 이 현실을 바꾸기 위해

한발 한발 나가는 이들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 지난 26일 박봉규 열사 분신 책임자 처벌 5차 투쟁대회에서  
염태규 사진부장  
snail11@dongguk.edu

### 민족의 생명권과 통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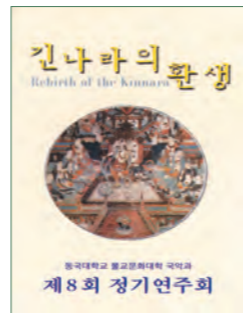


본교 강정구(사회학) 교수의 비판적인 역사사식을 바탕으로 집필된 이 책은 남과 북이 분단을 종결하고, 새로운 민족사를 개척해야 하는 민족사적 사명을 나타내고 있다. 분단과정 그 자체가 갖는 반역사성, 반민족성에 대한 고찰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통일이 실현의 단계에 있음을 인식하고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강정구 저/ 당대/ 정가 1만 9천원.

### 국악과 정기연주회



본교 경주캠 국악과가 제8회 정기연주회 '진나라의 환생'을 개최한다. 이번 연주회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된다. 제1부에서는 전통곡을 중심으로 연주되며, 제2부에서는 협주곡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서울 - 다음달 5일/ 오후 7시 /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경주 - 다음달 2일/ 오후 7시 / 서리별 문화회관/ 문의 (052)770-2509

## 새 소식

### 서준식 옥중서한



1971년 유학생 간첩단으로 체포되었다가 전향을 거부, 17년간 복역한 후 인권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저자 서준식이 수감 중 썼던 편지들을 묶어 놓은 책.

저자의 편지들을 통해 우리는 한 인간의 내면적 슬픔과 함께 자신의 정당함을 온몸으로 밀고 나가 그것을 지켜 내는 강인한 아름다움을 목격할 수 있다.

서준식 저/ 이근비행/ 정가 3만 4천원.

### 피어리스 던 정기공연



서울캠 락 동아리 피어리스 던(Fearless Dawn)이 12번째 정기공연을 갖는다.

이번 정기공연은 '가오리' 'Mad Dog' '언니오빠 밴드' 등 피어리스던 내 3개의 밴드가 공연을 펼치게 된다. 또한 공연에 참석한 이들에게 이날 밴드가 공연한 곡이 담긴 CD를 증정할 예정이다.

다음달 1일/ 오후 6시/ 학림관 소강당.

### 진보와 보수의 영국사



이 책은 1707년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통합으로 소위 영 제국이 성립된 시점으로부터 1970년대 영국이 유럽공동체에 가입한 시점까지의 영국 근현대사를 다루고 있다. 저자는 선거결과를 통해 엿볼 수 있는 의회와 사회 각 계층간의 관계변화를 중심으로 국가와 사회간의 상호작용을 밝히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W.A. 스펙 저/ 개마고원/ 정가 1만 5천원.

### 우수 광고 시상회

한국광고영상제작사협회(회장 원석희)에서 제 14회 '2002 세계광고영화 수상작 시상회'를 개최한다.

동서양의 우수 광고물을 한자리에 비교 감상할 수 있는 이번 시상회는 광고인, 학생 및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개최된다.

올해는 2002 Clio Awards, Cannes Festival, AdFest (아시아태평양광고제) 수상작과 2001년 New York Festivals, 일본 ACC, 대한민국광고대상 등 6개 광고제 수상작이 상영된다.

또한, 외국 수상작들은 한글자막과 함께 소개될 예정이다.

다음달 1일·2일 양일간/ 1회=오후 2시, 2회=오후 5시 30분/ 연강홀/ 문의 3675-456.

독

자

광

고

독자광고는 함께 일할 사람을 모집하거나 하숙집 구함, 야학교사 모집, 각 동아리·학생회 소모임 등에서 회원을 모집하는 등 분야에 제한없이 독자들의 광고로 이루어집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2002 동아리연합회 Autumn Festival

Rock, Hip-Hop, Dance with D.J  
한자리에서 즐기기

피어리스던, AJAX, 웅자^^\*,  
몽계구름, 피비스

그리고 가수 박혜경을  
한자리에서 만나기

2002.10.25/늦은5시부터-제한없음.  
만해광장에서

주최 : 제18대 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

## 무예 동아리 경당 '치우'가 2002학년도 하반기 신입부원을 모집합니다



뭔가 색다르고 의미있는 생활을 하고 싶은 새내기, 그리고 좀더 보람된 대학생활을 하고 싶은 정든 내기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24반 무예를 통해 건강하고 건전한 동국인이 되어 봅시다.

서울캠 학생회관 4층 경당치우

## DUCO

동대 하나뿐인... 컴 동아리!!



신입생 모집  
동아리방 : 경주캠  
학생회관 3층  
(컴맹 대환영)

## 중어중문학과 깃발 디자인 공모



중어중문학과만의 이미지와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멋진 디자인을 공모합니다.

신청기간: ~11월 1일(금)  
신청장소: 원효관 4층 중어중문학과 학회실  
당선작: 상금 5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23대 경주캠 중어중문학과 학생회



## 음악 들으러 오세요

따뜻한 소파와 음악이 함께 하는 곳 이곳에 오시면 낭만이 있습니다.

경주캠 학생회관 2층 음악감상실